

# 지식과 교양

##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4호, 2019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 차 례

## [섹션 1: 지식과 문화]

### ■ 최 성 욱 ■

독일 현대문학에 나타난 종교적 사유의 변혁과 혁명의 에토스 ..... 9

### ■ 홍 태 한 ■

전주 전통의례의 가치와 전주다움 ..... 30

## [섹션 2: 지식과 사회]

### ■ 서 정 일 ■

포스트휴먼(posthuman) 사회에서의 대학 인문교양 ..... 57

### ■ 이 용 준 ■

사회공학적 보안 위협 대응 방안 ..... 74

## [섹션 3: 지식과 언어]

### ■ 조 한 선 ■

국제어로서 영어강좌를 위한 수업방법 연구 ..... 87

### ■ 유 경 아 ■

A Case Study: Effects of Analogy on EFL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 114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 14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 152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 15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 164

# Knowledge & Liberal Arts

VOL 4. 2019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TABLE OF CONTENTS

##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 Choi, Sung Uk ||

Revolutionary Ethos in Religious Thought of German Modern Literature ..... 9

|| Hong, Tea-Han ||

Value of Religious Ceremonies and Attributes of Jeonju ..... 30

## **[Section 2: Knowledge & Society]**

|| Seo, Jung Il ||

Liberal Arts in Posthuman Society ..... 57

|| Lee, Yong Joon ||

Countermeasures on Social Engineering Security Threat :  
Focused on Website Security ..... 74

## **[Section 3: Knowledge & Language]**

|| Cho, Han Sun ||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EMI Classes as Lingua Franca ..... 87

■ Yu, Kyung Ah ■

A Case Study: Effects of Analogy on EFL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 114





# 독일 현대문학에 나타난 종교적 사유의 변혁과 혁명의 에토스

최 성 욱\*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 문학과 그리스도교 전통
  - 1. 문학 해석학의 토대로서의 성서 이해
  - 2 루터의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 III. 문학적 종교 비판의 핵심: 반(反)민중성과 몰(沒)역사성
  - 1. 독일 농민전쟁의 문학적 형상화, 『토마스 뮌처』
  - 2. “정신의 감옥”을 넘어 “새로운 노래”로: 하인리히 하이네의 비판문학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문학과 철학, 예술 등 유럽 정신사(精神史) 전통에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은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그리스도교적 전통이 강하게 배어 있다. 특히 독일의 문학과 철학은 성서에 대한 역사적·문헌학적 해석과 이해를 바

---

\* 대전대학교

탕으로 독일 문화의 토대를 굳건히 형성하고 있었다. 헬레니즘 Hellenism과 함께 서양 문명의 뿌리인 헤브라이즘 Hebraism이 독일문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으며 그로 인해 “문학과 종교의 뒤섞임 과정 literarisch-religiöser Mischungsprozeß”<sup>1)</sup>은 독일 문화의 오랜 역사적 전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세의 오랜 질서 속에서 종교(그리스도교)는 황제와 제후 등,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로서 대다수 농노(農奴) 신분이었던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층의 지배 이념에 복무했고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을 호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수많은 독일 지식인과 작가들은 종교의 반(反)민중성, 반(反)역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와 종교개혁 Reformation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후 권력과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던 루터의 신학적 입장과 종교개혁의 내면성 Innerlichkeit의 한계를 직시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 Protestantismus 고유의 변혁과 혁명의 정신을 복원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19세기 이후 독일문학에 나타난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적 사유 속에 담겨진 “변혁과 혁명의 에토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문학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성서를 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문학 이론가,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 J. Gottfried von Herder의 문학해석학의 논거에 관해 간단히 살피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독일 계몽주의 지식인 및 작가들의 평가와 더불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는 상반된 신학적 입장을 취했던 수도사이자 농민전쟁 당시의 혁명 지도자였던 토마스 뮌처 Thomas Müntzer에 관한 문학적 평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한다.

계몽주의 이후 독일문학은 중세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는데, “문학적 종교 비판의 핵심: 반(反)민중성과 몰(沒)역사성”에서는 이

---

1) Wilhelm Gössmann(1990): Kultur Christentum. Die Verquickung von Religion und Literatur in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Düsseldorf, 21.

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흐름은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인 성향의 뮌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더욱 두드러졌다. 독일의 문학사와 철학사에서 조금씩 언급되던 그에 관한 문학적 결실이 20세기 반파시즘 극작가, 프리드리히 볼프 Friedrich Wolf가 집필한 역사극, 『토마스 뮌처』이다.

그 밖에도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와 복고적 낭만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세기 프로이센 치하에서 자유와 혁명의 노래를 설파했던 자유주의적인 혁명시인 하인리히 하이네 Heinrich Heine의 문학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비판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하이네는 대서사시, 『독일. 겨울동화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를 통해 프로이센 보수주의 이념을 신랄하게 풍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의 반동이데올로기를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 II. 독일 문학과 그리스도교 전통

### 1. 문학 해석학의 토대로서의 성서 이해

중세 이후 신성로마제국 Das Heilige Römische Reich은 물론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유대 문화와 문학의 방대한 전통과 결합하여 문학을 비롯한 독일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사유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서구 국가에서 근대의 여명을 연 정치적·역사적 변혁이자 계몽주의 Aufklärung의 토대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꼽는다면, 독일에서는 역시 같은 의미에서 중세 봉건 질서를 타파·와해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기운을 펼친 사건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성서번역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단순히 종교적인 갱신(更新)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전 유럽의 대대적인 정신혁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 역사의 특수한 과정 Sonderweg에서, 즉 정치·사회적 변혁

보다는 정신 Geist을 통한 변화를 중시하는 문화 혹은 문화민족 Kulturnation 개념으로 발현된 독일인의 자의식과 정체성 형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독일 정신사에서 그만큼 그리스도 교적 사유 전통이 강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 문화와 작가들에게 루터의 성서 번역본 언어는 이후 수세기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20세기 사회주의 동독 작가들에게도 루터의 성서언어의 표현 양식은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루터 번역본의 민중언어는 이른바 민중연대성 Volksbundenheit을 강조했던 동독 사회주의 문화정책과 깊이 관련을 갖고 있었고 그에 부응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sup>2)</sup>

근대 이후 성서를 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 사람은 문학이론가이자 목사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였다. 그는 루터와 성서번역이 갖는 문학적·문헌학적 의의와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인문학 전반의 해석학 방법의 도입의 토대가 되리라 전망하였다. 해석학은 술라이어마허 Friedrich E. D. Schleiermacher와 빌헬름 딜타이 Wilhelm Dilthey에 이르러 정신과학의 연구 방법론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특히 술라이어마허에게 해석학은 성서를 비롯한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 방법론이었다.

술라이어마허는 인간 이해 자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해 자체의 현상, 이해의 보편 법칙을 파악하려 하였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태동된 해석학의 오랜 역사에서 술라이어마허가 갖는 의미는 근대 해석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 형식으로 '이해'라는 주제를 정립하였다는 데 있다. 가다머 Hans Georg Gadamer는 술라이어마허가 이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해석학과는 대비되는 일반 해석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이해와 해석의 보편적 이론으로서의 해석학을 기존의 교의 Dogma들

---

2) Eberhard Mannack(1993): Christliches Erbe in der DDR-Literatur. In: Elrud Ibsch/-Ferdinand van Ingen(Hrsg.): Literatur und politische Aktualität.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Bd.36, 56.

로부터 분리”<sup>3)</sup>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문학에서 성서 텍스트를 문학적 해석의 근간으로 삼았던 헤르더 역시 전통적인 교회의 교의가 성서해석 과정에서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해석학을 종교적 교의로부터 해방시키고, 문헌학 Philologie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성서해석학 경향에 호응하였다. 그는 “성서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과연 “올바른 이해는 어떻게 가능하며, 올바른 해석이라 정의되는 성서 이해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천착했다.<sup>4)</sup>

헤르더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이론으로서 “직접성 Unmittelbarkeit의 원칙”, 더 나아가 그 본연의 접근 방식을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서는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서 씌어진 책이기에 “인간적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해의 직접적인 가능성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언어로 씌어진 하느님의 계시 Offenbarung의 육화(肉化)인 성서에 대한 역사적·상황적 해석을 통해 체험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 문화의 토대를 “역사적 사건”이라 인식한 헤르더에게 성서와 하느님의 계시의 근간은 역사 Geschichte이다. 즉 성서는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작품 Werk”이다. 하느님의 “창조 행위는 종말론적인 역사”인데, 그것은 창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동참하며 “도래할 그 때 Kairos”를 향한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계시언어는 곧 행동언어 Aktionsssprache이며, 성서의 텍스트는 콘텍스트에 다가가고 그 속에서 응답하는 텍스트이다. 헤르더가 제시하는 해석학적 기본 지침은 역사화·문화화된 성서 이해에 근거한 “구체적인 역사화”<sup>5)</sup>이다. 헤르더는 “모든 책은 그 자체의 정신

3) Hans Georg Gadamer(1986): Hermeneutik I.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20.

4) 이에 관해서는 Marcia Bunge(1994): Herder's View of the Gospels and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In: Bollacher, Martin (Hrsg.): J.G. Herder. Geschichte und Kultur. Würzburg, 257-273을 참조할 것.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해석자는 특정 텍스트가 갖는 근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생성 상황에 맞춰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헤르더의 해석학적 지침은 근본적으로 읽는 이 각자의 이해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책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즉 그가 주장하는 이해의 자명성은 특정 텍스트를 해석자와 동시대의 것으로 연결시켜 주는, 지금 여기 *jetzt und hier*, 즉 현존 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써 헤르더는 성서 해석에서 역사적 상대주의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 헤르더의 해석학적 연구가 지니고 있는 변별적 자질은 성서 해석에서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현재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학적 관점에서의 헤르더의 이러한 성서해석학 이론은 이후 독일 작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성서를 문학적 논거로 수용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이로써 계몽주의 이후 많은 독일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 상황에서 교회와 교의를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에 비춰 콘텍스트를 비판하고 해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2 루터의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18~19세기 유럽의 정신적 혁명의 큰 줄기였던 계몽주의의 매체는 독일에서 문학이었다. 그렇기에 독일에서도 계몽주의 이후 루터와 종교개혁의 한계에 관해 조명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종교, 즉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과 진보적인 청년 독일 파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 루트비히 뵈르네 *Ludwig Börne*는 물론 심지어

5) Harald Schnur(1994): *Schleiermachers Hermeneutik und ihre Vorgeschichte im 18. Jahrhundert. Studien zur Bibelauslegung, zu Hamann, Herder und F.Schlegel.* Stuttgart/Weimar, 85.

6) Harald Schnur(1994): 32.

보수적인 성향의 낭만주의 작가들조차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천 년 가까이 지속된 신성로마제국<sup>7)</sup>은 비록 느슨한 형태의 제국이었으나 가톨릭교회와 황제, 영주의 권력 분점 아래 다수 민중을 농노의 신분으로 예속시킴으로써 중세 봉건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해 준 제국이었다. 하나의 제국(신성로마제국), 하나의 종교(가톨릭 보편교회), 하나의 언어(라틴어)로 대표되는 단단한 틀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으며, 그 속에서 교회와 라틴 문화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면서 다수의 민중을 옥죄는 정치 체제를 지탱해 준 것이다.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독일 작가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반(反)민중적이고 반(反)계몽적인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로 비춰졌으며, 그리스도교의 지배언어는 민중의 고통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권력자의 언어, 지배이데올로기의 산실과 다르지 않았다.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과 성서번역은 이후 서서히 이 단일 삼각 체제의 와해, 즉 제국 해체의 단초가 되고 가톨릭 보편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의 와해, 그리고 라틴어 단일문화 권력의 해체로 이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지식인, 작가들은 농민운동의 혁명 지도자로서 루터와 정반대의 신학적 노선을 취했던 또 다른 수도사, 토마스 뮌처에 대해 주목하였다. 즉 뮌처와 정반대로 '경건한 수도사'로 머물러 현실적인 변혁 운동을 거부했던 루터의 정치적 성향은 당시 자유주의적인 독일 지식인과 작가들에게 루터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Ludwig Feuerbach는 『기독교의 본질 Das Wesen des Christentums』에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가 그리스도교를 “실천적으로 부정”하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루터파 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세(來世)나 천국으로 밀쳐 넣었지만 실제에서는 부정”하였고,<sup>8)</sup> 결국 그리스도교를 “불화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화해의 중

7) 962년 독일 황제 오토 1세 이후 등장하여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소멸할 때까지의 독일 제국의 정식 명칭.

교”<sup>9)</sup>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기존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로서의 본연의) ‘불화(不和)’의 역할이 아니라, 모순과 부정의(不正義) 심지어 세속의 악(惡)의 세력과의 ‘화해’를 시도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히 시민계급 및 사회주의 좌파 지식인들이 루터에 대한 평가에서 극단적인 비판으로 돌아선 것은 토마스 뮌처 때문이었다.

교회가 사회와 민중에 대한 폭압자로 군림한 것에 분개했던 수도사, 뮌처는 로마 가톨릭 전통에 비판을 가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인 1521년 파문·추방당했으며 농노와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 민중농민 해방단체를 조직, 일약 정치적 혁명 지도자로 부상하며 독일 농민전쟁을 이끌다가 처형당한 인물이었다. 루터는 급진적인 토마스 뮌처를 맹렬히 비난하고 그를 처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루터의 태도는 독일 지식인과 작가들로 하여금 정치 및 사회적 변혁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교의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주입시켰다.

예컨대 1880년대 자유주의자이자 신학자, 역사학자였던 빌헬름 짐머만 Wilhelm Zimmermann은 뮌처를 농민전쟁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했다.<sup>10)</sup> 역사학자, 카를 하겐 Karl Hagen은 루터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왼쪽 날개”로서의 뮌처와 농민전쟁을 평가했고, 루터파 교회를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원리를 배반한 교회로 간주했다. 비르네, 루게 Luge 이외에 프리드리히 엥겔스 Friedrich Engels와 카를 마르크스 Karl Marx 역시 그랬다.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독일문학의 비판적 인식을 촉발시킨 계기는 계몽주의였다. 계몽주의와 더불어 문학과 종교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그것은 계몽주의와 프랑크스혁명이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정신사

8)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강대석 옮김) (1992): 기독교의 본질, 한길사, 519.

9) 루트비히 포이어바흐(1992): 526.

10) Wilhelm Zimmermann(1978): Der grosse deutsche Bauernkrieg, Berlin, 162.



적 변화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문학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서 특히 계몽주의야말로 “하느님이 앉아 계시던 심판관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은 것 Die Inthronisation auf Gottese Richterstuhl”과 똑같은 의미라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이다.<sup>11)</sup> 그리고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문학적 종교 비판의 대표적인 작가는 레싱과 하이네였다.<sup>12)</sup> 사실 문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성서 읽기는 서구 문학의 오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야훼와 신약성서 예수 역시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비유라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 반민중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제도권 종교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 III. 문학적 종교 비판의 핵심: 반(反)민중성과 몰(沒)역사성

#### 1. 독일 농민전쟁의 문학적 형상화, 『토마스 뮌처』

언급한 바와 같이 계몽주의 이후 독일 작가들이 루터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한 인물은 토마스 뮌처였다. 종교개혁 직후이자 뮌처가 활동한 1520년대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전쟁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치·사회적 변혁 운동이 불붙듯 일어난 시기였다. 루터의 교의에 대한 뮌처의 반박문, 『충분히 이유 있는 변론 Hochverursachte Schutzrede』(1524)은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Kommunistische Manifest』 이전에 발표된 독일 문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평가받는다.<sup>13)</sup>

11) Kurt Böttler(외) (1977): Aufklärung. Erläuterungen zur deutschen Literatur 6.Aufl., Berlin.

12) Wilhelm Gössmann(1990): 135.

13) “보아라, 고리대금업자, 도적떼와 강도들의 근간은 우리 지배자와 제후들이다. 이들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있다. [...] 그런데도 이에 대해 루터 박사는 ‘아멘’이라는 말만 할 뿐이다. Sieh zu, die Grundsuppe des Wuchers, der Dieberei und Räuberei sind unsere Herrn und Fürsten. Sie nehmen alle Geschöpfe zum

농노 신분이었던 대다수 민중은 권력자의 억압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문맹(文盲)이었기에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 더욱이 교회는 마녀사냥과 종교재판, 면죄부 판매 등을 통해 영주와 제후의 권력을 옹호·대변하고 있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 Die Religion ist Opium für das Volk”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 역시 무신론적 철학이나 종교 자체에 거부감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은 특히 헤겔 좌파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sup>14)</sup>

즉 당시 지식인들의 종교 비판은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렇듯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제공자였던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스 작스 Hans Sachs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은 반어(反語)와 풍자 등을 통해 당시 교회 권력과 종교개혁의 한계를 비판하고 조롱하였으며 전단지 Flugschrift 형식을 통해 “무기로서의 언어 Wort als Waffe”<sup>15)</sup>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독일 문학사에서 토마스 뮌처를 당당히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가는 동독의 저명한 작가, 프리드리히 볼프였다. 히틀러와 맞서 싸운 반파시즘 망명 작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 국가, 동독으로 귀환한 볼프는 그의 역사극, 『토마스 뮌처』를 통해 루터와 뮌처의 사상적 대립 그리고 뮌처의 신학적 입장을 문학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1924~1925년 발생한 독일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역사극에서 볼프는 뮌처를 민중의

---

Eigentum. [...] Dazu spricht dann der Doktor Luther: Amen.” Wolfgang Beutin 외 (1984): Deutsche Literatur 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Stuttgart, 60에서 재인용. 『충분히 이유 있는 변론』이 독일어권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전에 출판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억압자와 권력자에 맞선 피억압 계급을 위한 최초의 해방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14) 헤겔의 종교철학과 당시 그리스도교에 관한 헤겔좌파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Ernst Benz(1955): Hegels Religionsphilosophie und die Linkshegelianer, in: Zeitschrift fü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Vol. 7, 247-270.

15) Wolfgang Beutin(1984): 64.

억압적인 현실에서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하는 하느님 상(像)을 표현함으로써 불의와 탄압이 만연한 상황에서 내세의 위로가 아닌 인간의 역사에 동참하고 해방시키는 하느님의 사제로 묘사된다.

『토마스 뮌처』에서는 억압과 고통, 폭압이 횡행하는 현실에서도 “율법과 평화”를 말하는<sup>16)</sup> 루터 추종자들과 뮌처와의 신학적 논쟁이 펼쳐진다. 이 역사극에서 토마스 뮌처의 하느님은 “죽은 나무와 돌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민중의 활동과 행동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성 속에 계신”<sup>17)</sup> 하느님이다. 볼프는 토마스 뮌처의 하느님을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하느님, “저 세상에서의 수백 개의 약속보다 현세에서의 정의로운 행동”<sup>18)</sup>에 동참하고 약속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볼프는 토마스 뮌처가 피억압자와 함께 투쟁하는 하느님 상을 형상화한 것뿐만 아니라, 공평과 평등, 정의가 구현된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한 인물로 그린다. 『토마스 뮌처』에서 혁명가 뮌처가 희구한 하느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eine neue Erde”, 즉 “사악한 무리와 위선자들이 사라지면 인간의 활동이 황금색 밀과 같이 펼쳐지는 땅, 곡식이 여름 바람에 익어가는 땅”<sup>19)</sup>이다. 아울러 이 세상 만물의 열매가 몇몇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이가 함께 나누는 Omnia sunt communia” 세상인 동시에 땀 흘리며 노동하는 인간, 자유로운 노동과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창조 세계의 섭리 속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 곳이다.

16) Friedrich Wolf(1975): Thomas Müntzer, In: Walter Dietz(Hrsg.): 1525 Dramen zum deutschen Bauernkrieg, Berlin(Weimar), 484이하.

17) “Gott ist nicht im toten Holz und Stein, Gott ist in deinem Werken und Taten und deiner Vernunft.” Friedrich Wolf(1975): 493.

18) “die rechte Tat im Diesseits besser als hundert Verheißungen im Jenseits” Friedrich Wolf(1975): 501.

19) “Wenn die Gottlosen und Heuchler verschwunden sind, wird des Menschen Werk aufgehen wie goldner Weizen, und die Ernten werden reifen im Sommerwind.” Friedrich Wolf(1975): 532.

『토마스 뮌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떠돌며 히틀러 Hilter와 나치 정권의 야만과 폭압에 맞섰던 프리드리히 볼프의 새로운 꿈, 즉 “독일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농민의 국가이자 반파시즘”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출범한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작가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가 동독으로 귀환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볼프에게 그러한 꿈은 원대하고 벽찬 것이었다.

## 2. “정신의 감옥”을 넘어 “새로운 노래”로: 하인리히 하이네의 비판문학

1789년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것은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1792년 프랑스군이 신성로마제국을 공격하여 독일 내 여러 군소 제후국들은 신성로마제국에서 탈퇴, 나폴레옹에 복속되었다. 수백 개의 군소 제후국으로 분열되었던 신성로마제국 소속 국가 가운데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 주요 16개 제후국이 1806년, 라인동맹 Reinbund을 결성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 공식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연합군은 프랑스군과 전쟁을 벌였다. 이른바 “해방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에서는 그동안 잠복되었던 민족의식이 고양되었고 라인동맹 역시 해체되어 신성로마제국을 대신하여 34개 군주국과 4개 자유도시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 Deutscher Bund이 탄생하였다. 물론 그 중심은 프로이센이었다.

그러나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의 열기는 프로이센을 비롯한 독일 제후국들에게는 공포와 거부감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봉건적 제도 및 체제는 존속되고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자유 및 이상 개념은 더욱 내면화하였다. 기존 질서에 대한 속물적인 복종 의식이 만연하였고 이른바 “부른센샤프트 Burschenschaft”라고 불리는 학생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

인 탄압과 검열 및 감시 조치, 군대와 관료 중심 체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 된 반(反)민주적인 군국주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리하여 이 시기 독일 주요 정치 세력은 보수주의에 입각한 “질서 Ordnung, 안정 Stabilität, 보존 Bewahrung”<sup>20)</sup>이라는 지배 이념이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프로이센에서는 소작인과 소규모 수공업자 등을 막론하고 거의 사회의 모든 계층이 최하층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9세기 중반, 궁핍함은 절정에 달했다. 더욱이 초기 산업화 과정이 진행될 당시 프로이센의 여러 도시에서는 노동력밖에 없는 팔 것이 없는 빈민 노동자층이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임시노동자였다. 사회 전반에 확산된 불평등과 경제적 수탈 구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 당국은 엄격한 검열 정책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제압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당시 독일 내 비판적 지식인과 작가들 대부분은 떠돌이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오랫동안 낭만적인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생시몽 (Saint-Simon)주의<sup>21)</sup>에 경도되었던 혁명적 성향의 유대계 독일 작가, 하인리히 하이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830년 파리 7월 혁명에 열광했던 하이네는 반동적인 복고주의가 횡행하는 독일연방의 정치 질서에 대한 비판의 촉수를 예리하게 가다듬었다. 하지만 이즈음 독일에서는 국수주의적인 성향의 민족주의와 중세의 복고적 낭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반(反)프랑스 기념 축제(1841)가 난무했고 1560년 이후 약 300년 간 중단된 쾰른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행사가 1842년에는 펼쳐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변혁을 목도한 하이네는 종교개혁의 단초가 정치 혁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함부르크로 돌아오면서 장대한 서사시, 『독일, 겨울동화』를 썼다. 이 서사시는 반동적인 낭만주의로 가득한 프로이센 국수주의 이념에 대한 풍자와 조롱, 그리고 그

20) 허상봉(1993): 하인리히 하이네의 서사시 『독일, 한 겨울동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2.

21) C.H.R. 생시몽의 인간해방 사상을 계승한 19세기 초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을 일컬음.

이념의 자양분인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새로운 노래, 더 좋은 노래 ein neues Lied, ein besseres Lied”로 표현되는 유토피아, “이 땅 위에 구현되어야 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sup>22)</sup>

“새로운 노래, 더 좋은 노래”는 『독일. 겨울동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서, 현세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신의 감옥(바스티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와 상반된 이 땅, 이 세상에서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노래이다. 하이네가 보기에 당시 그리스도교는 영·육(靈·肉) 이원론에 함몰되어 오로지 “정신, 영혼, 초지상적인 것 Geist, Seele, Überirdisches”만을 “순수한 실체 reine Sunatanz”로 받들면서<sup>23)</sup>, 민중의 고통과 변혁의 열망을 도외시키고 피안(彼岸)의 믿음에 갇힌 “감옥”의 종교였다.

『독일. 겨울동화』에서 하이네가 “중세의 광신적 춤을 추는 사제와 수녀들”이라 묘사한 교회와 성직자들도 억압 세력과 반동 이데올로기의 대변자이며 쫓겨난 대성당의 재건축 역시 그 상징일 뿐이다.<sup>24)</sup> 그리스도교에 대한 하이네의 비판의 요점은 그리스도교가 지나치게 영적이고 금욕적이며 이 땅에서 삶의 실체를 왜곡하고 억누름으로써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지상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단순히 궁핍하고 억눌린 삶을 단지 위로 Vertröstung하는 사제의 종교에 불과했다.

19세기 독일 작가 가운데 종교, 즉 그리스도교와 정치·사회적 모순, 이

22) “새로운 노래, 더 좋은 노래를/ 오, 친구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지어주겠어!/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네./ 우리는 이 땅위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더 이상 굶주리고 싶지 않기를 바라네./ 부지런한 손이 번 것을/ 게으른 배가 모두 낭비 해선 안 되지.” Heinrich Heine(1985): Atta Troll. Ein Sommernachtstraum.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In: Manfred Windfuhr(Hrsg.): Heinrich Heine. Bd.4. Historisch-kritische Gesamtausgabe der Werke, Hamburg, 92.

23) Manfred Windfuhr(1976): Heinrich Heine. Revolution und Reflexion, Stuttgart, 147.

24) “보아라! 달빛 속에서/ 저 우뚝 솟은 것을!/ 시꺼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솟은 것을/ 저것이 쫓겨난 대성당이다./ 이놈은 정신의 바스티유 감옥이 될 거야./ 그리고 간사한 교황 승배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거대한 감옥에서/ 독일의 이성은 사라질 거라고!” Heinrich Heine(1985): 98.

25) Wilhelm Gössmann(1990): 162.

양자의 관계를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하이네는 결코 추상적인 종교 개념, 사변적인 신학 논쟁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이네의 비판은 당시 그리스도교가 정치·사회적 모순에, 권력의 횡포에, 인간의 고통과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반동적인 기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당시 독일의 철학자, 작가 등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마르크스와 모세스 헤스 Mosses Hess 같은 헤겔 좌파 지식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이들은 단지 내적인 구원에 도취된 열광적인 경건주의 성향과 “보수주의·정치적 반동주의적인 국가교회의 형식 Form eines konservativen, politisch-reaktionären Staatskirchentums”<sup>26)</sup>에 안주한 종교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 비단 문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사 전반에서 이러한 종교비판 의식을 선도했던 인물이 바로 하이네였다.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인식한 최초의 인물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바로 하이네였다는 평가가 그러하다.<sup>27)</sup>

『독일, 겨울동화』에서 또한 하이네는 “환전상과 은행가를 사원에서 회초리로 내쫓았던” 예수에 대한 동정과 더불어 그의 뜻이 제자들에게 왜곡된 역사에 대한 아쉬움도 담아낸다.<sup>28)</sup> 예수가 격노하며 내쫓았던 “환전상과 은행가”들이 훗날 예수를 죽게 만들었듯이, 당시 교회가 예수를 피안의 세계에 가두었다는 것이다. 하이네는 교회가 약속한 무의미한 영적인 하늘나라는 “천사나 참새들에게나 맡겨 버리자”고<sup>29)</sup> 조롱한다.

26) Ernst Benz(1955): 256.

27) Ernst Benz(1955): 253.

28) “나는 매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구나./ 그대의 모습, 불행한 나의 사촌이여(같은 동족인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표현임 - 옮김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그대/ 바보, 인류의 구원자여!/ 대체 그 누가 그토록 무자비하게 교회와 국가에 대해/ 그대로 하여금 무자비하게 말하게 하였단 말인가! [...] 환전상과 은행가를 그대는 사원에서 회초리로 내쫓았네./ 불행한 열정주의자여, 그대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Heinrich Heine(1985): 110이하.

29) Heinrich Heine(1985): 92.

이처럼 하이네가 『독일. 겨울동화』에서 묘사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은 현세와 지상에서의 변혁을 외면한 당시 그리스도교의 몰(沒)역사성에 대한 조롱이자 반동이데올로기의 봉사자로 전락한 교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아울러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활짝 꽃피울 새로운 하늘나라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다. 하이네의 유토피아주의는 19세기 변혁의 시대에 서양 문학에 큰 울림을 주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모두 하이네를 통해 공동체주의 이념의 근간인 생시몽주의의 문학적 표현을 발견했으며 하이네 특유의 예술성에 바탕을 둔 미학적 유토피아주의를 인간해방의 문학의 상징으로 평가했다.

#### IV. 나오는 말

통렬한 풍자 그리고 가차 없는 조롱을 통해 프로이센 경직된 군국주의와 봉건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하인리히 하이네는 독일 문학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작가, 완전한 평등과 유토피아주의를 추구했던 작가였다. 그의 『독일. 겨울동화』는 『아타 트롤 Atta Troll』와 더불어 풍자로 일관된 탁월한 대서사시로서 정치권력은 물론 “낡은 체념의 노래 das alte Entsangslied”<sup>30)</sup>만을 읊조리는 교회에 대한 비판, 사유재산과 특권이 철폐되고 평등한 이 땅의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노래한 시였다.

저명한 문학평론가들은 하이네의 『독일. 겨울동화』가 비단 독일 문학사에서만이 아니라 서구 문학사 전통에서 빛나는 문학적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스 카우프만 Hans Kaufmann은 『독일. 겨울동화』를 단테 Alighieri Dante의 『신곡 La divina commedia』이나 괴테 Johann Wolfgang v. Goethe의 『파우스트 Faust』에 필적하는 “인류의 시 Menschheitgedicht”<sup>31)</sup>라고 상찬하였다.

---

30) Heinrich Heine(1985): 91.

31) 허상봉(1993): 13에서 재인용



프리드리히 볼프의 『토마스 뮌처』는 근대 이후 문학은 물론 문화사 전반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혁명 지도자, 토마스 뮌처에 대한 문학적 평가의 완결이었다.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려졌던 독일 농민전쟁은 20세기 독일 문학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다시 평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맹신과 순종, 복종만을 하느님의 뜻으로 강요했던 교회 권력에 맞서 인간의 “이성”과 더불어 역사하는 하느님, 불의에 맞선 자의 편에 선 하느님 상을 펼쳤던 뮌처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가히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인 신앙 의식이었으며 이후 많은 독일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 참고문헌

- Benz, Ernst(1955): Hegels Religionsphilosophie und die Linkshegelianer,  
in: Zeitschrift fü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Vol. 7,  
247-270.
- Beutin, Wolfgang 외(19842): Deutsche Literatur 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Stuttgart.
- Böttler, Kurt(외) (1977): Aufklärung. Erläuterungen zur deutschen  
Literatur 6.Aufl., Berlin.
- Bunge, Marcia(1994): Herder's View of the Gospels and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In: Bollacher, Martin(Hrsg.): J.G. Herder.  
Geschichte und Kultur. Würzburg, 257-273.
- Gadamer, Hans Georg(1986): Hermeneutik I.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 Gössmann, Wilhelm(1990): Kultur Christentum. Die Verquickung von  
Religion und Literatur in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Düsseldorf.
- Heine, Heinrich((19)85): Atta Troll. Ein Sommernachtstraum.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In: Manfred Windfuhr(Hrsg.):  
Heinrich Heine. Bd.4. Historisch-kritische Gesamtausgabe der  
Werke, Hamburg.
- Mannack, Eberhard(1993): Christliches Erbe in der DDR-Literatur. In:  
Elrud Ibsch/Ferdinand van Ingen(Hrsg.): Literatur und politische  
Aktualität.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Bd.36, 53-69.
- Schnur, Harald((1994): Schleiermachers Hermeneutik und ihre  
Vorgeschichte im 18.Jahrhundert. Studien zur Bibelauslegung, zu

Hamann, Herder und F.Schlegel. Stuttgart/Weimar.

Windfuhr, Manfred(1976): Heinrich Heine. Revolution und Reflexion,  
Stuttgart.

Wolf, Friedrich((1975): Thomas Müntzer, In: Walter Dietz(Hrsg.): 1525  
Dramen zum deutschen Bauernkrieg, Berlin(Weimar).

Zimmermann, Wilhelm(1978): Der grosse deutsche Bauernkrieg, Berlin.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강대석 옮김) (1992): 기독교의 본질, 한길사.

허상봉(1993): 하인리히 하이네의 서사시 『독일. 한 겨울동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대 이후 독일문학에서 문학과 종교와의 관계에 관한 분석, 특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 그리스도교의 반민중적·반역사적인 기능에 대한 문학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몽주의 이후 독일문학은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는데, 그것은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한 독일 작가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독일 지식인과 작가들은 당시 변혁적 상황에서 루터와 대립된 신학적 이념을 가진 혁명 지도자, 토마스 뮌처를 역사적·문학적으로 재평가하였다. 프리드리히 볼프도 그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역사극 『토마스 뮌처』에서 볼프는 혁명가 뮌처를 억압당하는 민중과 함께 하는 하느님 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세의 위로가 아닌 인간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느님의 사제로 묘사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독일에서도 혁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고조되었다. 억압적인 군국주의 체제가 횡행하던 당시 프로이센에서 하이네는 서사시, 『독일. 겨울동화』를 통해 반동이데올로기를 풍자하고 조롱하면서도 그 권력의 봉사자 역할을 한 교회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아울러 피안의 세상을 역속하며 현세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열망을 담은 미학적 유토피아주의의 정수(精髓)를 보여주었다.

주제어 ● 문학과 종교,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하인리히 하이네, 프리드리히 볼프

■ Abstract

Revolutionary ethos in religious thought of german  
modern literature

Choi, Sung Uk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literature was a significant theme in the German literatur since the modern age. After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in the Enlightenment, literary criticism and dispute about ahistorical role of the Christian religion become heated.

The German writer has been reevaluated Thomas Münzter who was remembered as the revolutionary firebrand of the Reformation. Münzter as radical theologian of the early Reformation resisted the authority of late-feudal system. In his historical drama, Thomas Münzter, Friedrich Wolf has described Münzter as the priest of God in solidarity with the oppressed. Münzter in this drama make a strong stand against reactionary dogma.

In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Heinrich Heine expressed literally also dream and vision about the kingdom of heaven upon earth. The great epics,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is a satire mocking a targeted spiritual power of the church and feudal militarism in Preussen

Keyword ● Literature and religion, the Reformation & Enlightenment, Heinrich Heine, Thomas Münzter



# 전주 전통의례의 가치와 전주다움

홍 태 한\*

## 목차

### I. 머리말

### II. 전주 전통의례의 다양성

1.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제
2. 유교 전통의례 조경단대제
3. 무속 전통의례 강신무굿
4. 관우신앙
5.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

### III. 전주 전통의례의 복합성과 전주 정체성

## I. 머리말

전주의 전(全)과 완산주의 완(完)은 모두 공통되게 ‘온’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전주를 ‘온고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온이 완성, 다 갖추어짐의 의미도 되겠지만 글쓴이가 보기에는 ‘넉넉함’, ‘모든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이다. 글쓴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sup>1)</sup>을 보아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전주의 특징이 보인다. 오랜 전주의 역사를 고려할 때 다양한 전통의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불교, 유교, 민간신

---

\*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1) 이하 전통의례라고 줄여서 명명하기로 한다.

양 등 신앙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에서 전주의 힘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2018년 전주의 전통의례 중에서 생전예수재, 조경단대제, 전주강신무굿을 주로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했고 여기에 관우신앙, 마을신앙 등을 함께 살펴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그동안 조사된 여러 사례를 검토 하면서 전주 전통의례의 편폭이 넓음을 알았다. 도시화가 된 곳이지만, 그래도 곳곳에 여러 민간신앙이 살아있어 전통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도시가 전주임을 알았다. 골골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고, 골목골목에 민간신앙의 현장이라 할 무당들의 신간(神竿)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마을지킴이를 모시는 마을도 여럿이다. 본격적으로 무형유산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톨릭 박해의 현장과 여러 이야기도 남아있어 세월이 흘러간다면, 무형유산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맞춰 전통의례를 중심으로 전주 무형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 목표가 된다. 그래서 글쓴이가 조사한 전통의례의 실상을 제시하면서 전주 무형유산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특징을 나름대로 밝히려고 한다. 논의를 전개하면서 글쓴이는 주로 조사한 자료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겠지만, 조사되지 않은 자료, 사라진 자료도 포함하여 글을 쓸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전주의 전통적인 전통의례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면 좋겠지만 전통적인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주는 진작부터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주대사습놀이, 단오제, 소리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를 통해 무형유산이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알려준다. 그래서 전주를 기반으로 한 여러 무형 유산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다<sup>2)</sup>. 2017년에는 색지장, 지승장 등이 전라북도

2) 전북 무형문화재로 판소리(2호), 향토주담그기 이강주(6-2호), 가곡(8호), 판소리장단(9호), 선자장(10호), 악기장(12호), 옷칠장(13-2호), 시조창(14호), 호남살풀이춤(15호), 영산작별(18호), 목가구(19호), 침선장(22호), 단청장(24호), 한지발장(31호), 전통음식 비빔밥(39호), 가야금산조(40호), 한량춤(44호), 우산장(45호), 전라삼현육각(46호), 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무형유산의 가치를 찾아내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 기반을 확고하게 닦는 전주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특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전주에 유독 많은 것에 눈길이 간다. 이는 전주가 사람과 물산이 집산하는 도시이면서, 전북 문화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 II. 전주 전통의례의 다양성

### 1.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재<sup>3)</sup>

전주 전통의례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생전예수재이다. 전북 무형문화재로 전주 영산작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명칭에도 보이듯이 작법(춤)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 크다. 전주 영산작법은 봉서사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다가 현재는 전주에 자리잡았다. 최근 보유자가 모두 유고 상태여서 주춤하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여러 어산 스님들이 전수교육에 힘쓰면서 다양한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산작법에서 중요한 의례로 여겨 전승에 힘쓰는 것은 주로 영산재이다. 영산재는 국가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불교의례이다. 특히 영산재의 기능보유자 일응 스님이 전주와 서울 양쪽에서 전승 활동에 힘쓰면서 경제 어산작법과 호남제 어산작법이 섞여 지금은 호

---

기무(48호), 가야금병창(49호), 나전장(50호), 낙죽장(51호), 전라삼현승무(52호), 모필장(54호), 민속목조각장(58호), 색지장(60호), 지승장(61호) 28종목이 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는 선자장(128호)이 있다.

3) 이 글에서 다룬 생전예수재 관련 논의는 글쓴이가 작성한 아래 논문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홍태한,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교육적 의미」, 『어문학교육51』, 어문학교육학회, 2015.

홍태한, 「생전예수재, 산오구굿, 산씻김굿의 비교」, 『불교문예연구6』,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6.

홍태한, 「생전예수재 조전점안이운의식의 민속적 의미」, 『민속연구3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남 고유의 어산작법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주에는 생전예수재가 지금도 전승되고 있어 호남 고유 불교의례의 다양한 측면을 살필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생전예수재는 불교의례 중 비교적 여러 사찰에서 설행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의례라고 하면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수록재, 영산재, 생전예수재 등이 있는데, 상주권공재와 시왕각배재는 49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영산재와 수록재는 각각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불교의례를 넘어서 한국 의례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전예수재는 글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預) 닦는(修) 재(齋)를 말한다. 죽은 뒤에 행할 불사를 살아 있는 당시에 미리 닦기 위해 드리는 재의식으로, 살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전생에 진 빚을 미리 갚고 또 재를 드려서 죽기 전에 미리 닦는 의식이다. 이와 같은 생전예수재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과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에서 그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생전예수재는 윤달에 날을 가려 여러 사찰에서 설행했다. 무엇보다도 생전예수재에는 이승과 저승이 모두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여러 사찰에서 생전예수재를 설행할 때 여러 신도들이 참가하여 금전을 이운하면서 저승의 복을 비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조전점안이운이라 하여 금전을 머리에 이고 사찰 경내를 도는 여러 신도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장관이다.

생전예수재는 재전의식과 본재의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재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의 기본 재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개 운수단 - 상단 - 중단 - 하단 - 봉송의 순서로 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본재의식이 생전예수재 의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의식과 일치한다. 재전의식은 생전예수재 앞 부분에 각 사찰의 사정이나 어산 스님의 성향에 따라 붙여 설행하는 것으로 사찰이나 종파마다 다르다. 시련-대령-관육-괘불이운-조전점안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전점안이운>의식만큼은 반드시

시 포함된다. 생전예수재 본재의식을 의식집 순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운수단 : 운수단은 생전예수재의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향을 살라 성불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2)사자단 : 사자를 청하여 대접한 후 다시 명부로 보내 명부의 여러 성중이 재에 오시기를 아뢰는 부분이다.

(3)상단 : 부처님을 모셔 관육 후 증명단으로 이동하고 대중들이 영접하는 내용이다.

(4)중단 : 명부의 여러 권속을 불러 모시고 관육한 후 공양구를 갖춰 올리는 부분으로 생전예수재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살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전생에 진 빛을 미리 갚고 또 재를 드려서 죽기 전에 미리 닦는 의미가 강조된다.

(5)하단 : 금은전을 하단 앞으로 옮기고 고사판관을 청하는 연유를 밝히는 부분으로 저승을 위해 이승에서 돈을 쌓아준다는 응보적 구조가 두드러진다. 금은전을 신고 갈 마구를 청하는 것도 불교적인 색채보다 민속적인 의미가 두드러진다.

(6)봉송 : 생전예수재를 마무리하고 수행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부분이다.

생전예수재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단이다. 명부의 여러 권속이 나타나는데 불교에서 인식한 저승의 모습으로 이는 한국 무속 저승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중단은 16편 소청명부부터 25편 공성회향까지인데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6편 소청명부이다. 여기에 명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청명부는 천수계바라를 치고, 도량계작법을 행한 후 다시 요잡바라를 치고 거불로 시작한다. 소청중위소를 통해 명부의 여러 권속을 청할 것을 알린다. 소청중위소에 중단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

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일심봉청 제위명왕중(一心奉請 諸位冥王衆)
- 일심봉청 제위옥왕중(一心奉請 諸位獄王衆)
- 일심봉청 제위판관중(一心奉請 諸位判官衆)
- 일심봉청 제위귀왕중(一心奉請 諸位鬼王衆)
- 일심봉청 제위장군중(一心奉請 諸位將軍衆)
- 일심봉청 제위아방중(一心奉請 諸位阿旁衆)
- 일심봉청 제위동자중(一心奉請 諸位童子衆)
- 일심봉청 제위졸리중(一心奉請 諸位卒吏衆)
- 일심봉청 제위부지명위등중(一心奉請 諸位不知名位等衆)

뒤이어 진령계, 보소청진언, 소청염마라왕진언을 행한 후 유치를 거쳐 청사(請詞)로 풍도대제(豐都大帝), 하원지관(下元地官),十方법계(十方法界), 지부일체성중(地府一切聖衆)이 오늘 법회에 오셔서 공양 받기를 기원한다. 뒤이어 십대왕과 그 권속이 모두 오시기를 청한다. 십대왕은 제일 진광대왕, 제이 초강대왕, 제삼 송제대왕, 제사 오관대왕, 제오 염라대왕, 제육 변성대왕, 제칠 태산대왕, 제팔 평등대왕, 제구 도시대왕, 제십 오도전륜대왕이다.

다음으로 이십육판관과 삼원장군(三元將軍)을 청한다. 이십육판관과 삼원장군은 다음과 같다. 제1하판관(夏判官), 제2송(宋)판관, 제3노(盧)판관, 제4사명(司命)판관 제5서(舒)판관, 제6왕(王)판관 제7배(裊)판관, 제8조(曹)판관, 제9마(馬)판관 제10조(趙)판관, 제11최(崔)판관, 제12보(甫)판관, 제13웅(熊)판관, 제14황보(皇甫)판관, 제15정(鄭)판관, 제16하(河)판관, 제17공(孔)판관, 제18호(胡)판관, 제19전(傅)판관, 제20굴(屈)판관, 제21진(陳)판관, 제22육(陸)판관, 제23인(印)판관, 제24장산(掌算)판관, 제25강한(江漢)판관, 제26유(庾)판관과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중원갈장

군(中元葛將軍),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다. 뒤이어 삼십칠위 귀왕을 청한다. 삼십칠위 귀왕은 다음과 같다. 제1무독귀왕, 제2악독귀왕, 제3악목귀왕, 제4쟁악귀왕, 제5대쟁악귀왕, 제6백호귀왕, 제7혈호귀왕, 제8적호귀왕, 제9산양귀왕, 제10비신귀왕, 제11전광귀왕, 제12낭아귀왕, 제13천조귀왕, 제14담수귀왕, 제15부석귀왕, 제16주모귀왕, 제17주화귀왕, 제18주식귀왕, 제19주재귀왕, 제20주축귀왕, 제21주금귀왕, 제22주수귀왕, 제23주매귀왕, 제24주산귀왕, 제25주명귀왕, 제26주질귀왕, 제27주검귀왕, 제28주목귀왕, 제29사목귀왕, 제30오목귀왕, 제31나리차귀왕, 제32대나리차귀왕, 제33아나타귀왕, 제34대아나타귀왕, 제35주음귀왕, 제36호목귀왕, 제37남안귀왕과 그에 딸린 여러 권속을 청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부동자와 악부동자, 직부사자, 추훈사자와 같은 여러 사자들, 호법신, 토지영기등중(土地靈祇等衆)의 여러 권속을 청한다.

그런데 십대왕 다음에 제시한 이십육판관과 삼십칠위귀왕, 선부동자와 악부동자, 여러 사자들은 각각 십대왕에 속해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십대왕과 그 권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십대왕 중 제1진광대왕의 권속을 어떻게 청하는가를 살펴본다. 십대왕을 거명한 후 뒤를 이어 판관, 귀왕, 동자, 사자를 연이어 청한다.

제일진광대왕 안열종관 판관귀왕 이부사직 감재직부 태산유판관 태산주판관 도구송판관 대음하후판관 나리실귀왕 악독귀왕 부석귀왕 대쟁귀왕 주선동자 주악동자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사 시직사사 감재사사 직부사사 등중 각병권속(第一秦廣大王 案熱從官 判官鬼王 二符四直 鑑齋直符 泰山柳判官 泰山周判官 道句宋判官 大陰夏侯判官 那利失鬼王 惡毒鬼王 負石鬼王 大諍鬼王 注善童子 注惡童子 年直使者 月直使者 日直使者 時直使者 監齋使者 直符使者 等衆 各竝眷屬)

이런 식으로 십대왕의 여러 권속을 연이어 부른다. 십대왕을 비롯한 명

부의 여러 권속이 들어오게 되면 앞에 제시한 중단의 순서에 따라 관육을 하고 상단의 불, 보살께 예를 갖춘 후 중단에 자리잡아 공양을 받는 식으로 이어진다. 불교의례의 여러 의례문 중 특정한 곳에 속한 여러 권속을 이처럼 상제하고 질서있게 나열한 것은 드물다. 이것은 생전예수재의 중단이 명부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고 질서있게 나열했다는 의미이다. 곧 명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금 행하고 있는 생전예수재의 핵심이 명부의 여러 권속들에게 미리 공덕을 닦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생전예수재의 재전의식으로 진행되는 <조전점안이운>의식의 흐름을 살펴본다. 의식이 시작되면 참석자들은 <정구업진언>과 <천수경>을 봉독하면서 준비한다. 그러면 곧바로 조전점안이 시작된다. 먼저 돈을 만드는 진언으로 <조전진언造錢眞言>을 의례를 맡은 어산 스님들이 송한다. 의례를 주관하는 법주 스님이 요령을 올리면서 <성전진언成錢眞言>으로 돈이 완성되었음을 알린다. 이제 완성된 돈에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붙여넣어야 한다. 이때 법주는 조전된 곳에 뿌릴 향탕수를 준비하는데 이때 염송하는 것이 <가지수加持水>이다. '南無佛水 南無法水 南無僧水 南無五方龍王水'로 물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법주 스님은 요령을 올리면서 돈 위에 법수를 뿌리면서 <쇄향수진언灑香水眞言>을 염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솔가지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법수를 뿌린다. 드디어 명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 이때 염하는 것이 <변성금은전진언變成金銀錢眞言>이다. 쌓아두었던 돈을 열어 확인하고 제대로 금은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개전진언開錢眞言>과 <괘전진언掛錢眞言>을 염한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돈이 명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은전으로 바뀌었다. 이제 바뀐 돈을 고사단 앞으로 옮기는 이운의식이 이어진다.

이운의식은 금은전 이운에 도움을 주실 성종의 강림과 도량의 옹호를 기원하는 <옹호계擁護偈>로 시작되는데 이때 <오잡바라繞匠鉞羅>를 선행한다. 금은전 이운을 사방에 알리는 <이운계移運偈>, 돈이 움직이기 시

작했음을 알리는 <동전계動錢偈>가 이어지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꽃을 뿌리는 산화락(散花落)이 이어진다. 신도들은 반야심경을 염송하면서 돈을 머리에 이고 사찰 경내를 돌아 고사판관 앞에까지 돈을 옮겨 쌓는다. 돈을 바치는 <헌전계獻錢偈>와 <헌전진언獻錢眞言>이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돈이 돈으로의 힘을 가지면서 명부의 창고를 관장하는 창고지기 앞에까지 이동된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함합소이다. 함합소에는 어디에 사는 누가 언제 어떤 사찰에서 누가 주관하는 예수재에 참가하여 상중하단의 여러 권속들에게 어떤 정성을 바쳤으며 그를 통해 나중에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일정한 돈을 명부에 바쳤음을 기록한 내용이 실려 있다. 함합소는 내용에 따라 다음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소문(疏文)의 형식을 띠고 있어 한자로 구성된 산문이지만 내용의 흐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첫 단락은 예수재를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도량을 세우고 결계한 후 태어날 때 빌린 명전을 준비했다고 알린다. 이를 통해 오늘 예수재가 빌린 돈을 갚는 의식이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알린다. 둘째 단락은 예수재를 설행하여 여러 성중을 모셨음을 각 단별로 아뢰고 법식을 베풀었으니 와서 흠향하라고 아뢴다. 이 부분에 예수재에 모셔지는 여러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분들께 바치는 법식을 아뢰 마음껏 흠향하기를 기원한다. 후술하겠지만 저승사자들에게 부탁을 할 때 걸게 상을 차리는 무속신화의 내용과 흡사하다. 셋째 단락은 사람마다 수명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몸을 받을 때 명부의 성총(聖聰)에게 돈을 빌렸음을 아뢴다. 이때 저승에 있는 여러 창고 중 하나에서 자신이 빌렸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고의 번호를 제시하고 빌린 돈의 액수와 빌린 경전의 숫자를 기록한다. 이를 함합소에 명확히 기록하고, 고사단 앞에 돈을 바쳤다가 소대로 이동한 후 소대에서 태워버림으로써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자신이 빌린 것을 이제야 갚는다고 하면서 자세히 살피 줄 것을 청한다. 여기에서는 사후에 좋

은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말은 없다. 자신이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았을 뿐이라고만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함합소를 이등분하여 하나는 태워 저승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 관에 넣어 저승으로 가져간다. 저승에서는 함합소를 보고 이미 전생 빚을 갚았으니 다시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고 따라서 망자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함합소에 기록되어 있듯이 육갑에 따라 갚아야 할 돈과 경전의 숫자가 다르고, 그를 관장하는 명부의 조판도 다르다. 이는 이승에 태어날 때 저승에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함합소를 보면 사람은 저승의 성총에게 돈과 경전을 빌려 태어나 그를 바탕으로 이승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돈을 고사판관 앞으로 옮겨 쌓아 바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빌린 것을 되갚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살아서 행하는 공덕의 예가 될 수 있다.

생전예수재에는 상단, 중단, 하단, 마구단이 설단된다. 상단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과불을 모신다. 중단은 명부의 여러 권속을 모시는 것으로 십대왕을 비롯한 각 권속들의 명호를 써서 장엄으로 건다. 하단은 고사판관을 모시는 곳으로 저승의 창고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금은전을 쌓아둔다. 마구단은 말을 모시는 곳으로 말 그림을 그려 장엄하고 그 앞에 여물과 물을 차린다. 상단 좌우에는 금은전을 걸어 장엄하고 팔보살변, 십이여래변도 장엄한다.

생전예수재에는 여러 종류의 작법무도 설행된다. 여기에는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가 있는데 전주 예수재에는 법고무는 없다. 바라무는 불보살의 강림이나 의식이 행해지는 도량의 옹호를 청원할 때 추는 춤이다. 또 불보살님들을 찬탄하고 도량에 악한 기운이나 악귀의 접근을 막고 선한영혼에게 지해를 넣어주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의미도 있다. 바라무는 범패 또는 사물 등의 기악반주에 맞추어 양손에 동(銅)으로 만들어진 악기인 바라를 잡고 한팔씩 올렸다 내리거나, 양팔을 올리는 동작들로 구성된 춤이다.

바라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손을 교차하면서 돌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바라를 치거나 비벼서 소리를 내면서 추기도 한다. 이처럼 양손의 교차동작을 사용하여 몸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바라의 동작은 매우 힘이 있고 동적인 움직임 연출한다. 이때 발은 고무래 정(丁)자를 기본으로 한다. 또 몸의 자세는 상체를 바로 세우고 시선은 코끝을 향하게 하여 춤을 춘다. 바라를 단전의 위치인 배꼽 아래로는 내리지 않는다. 바라무의 의상은 장삼과 가사를 입는다. 바라무는 일곱 종류로 요잡바라, 천수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사다라니바라, 명바라, 관육쇠바라, 내림계바라가 있는데 전주 예수재에서는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가 주로 나타난다. 착복무는 흰색 육수장삼과 홍색가사를 입고 고깔을 쓰며 연꽃을 양손에 들고 추는 춤의 형태이다. 착복무를 나비춤이라 하기도 하고 작법무라 하기도 한다. 나비무는 춤추는 모양이 나비를 닮았다하여 나비무라 하며, 작법무는 불교의식 무용 전반을 가르키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게는 착복무를 지칭해 쓰이기도 한다. 한사람이 추면 향착복무(香着服舞)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추면 쌍착복무(雙着服舞), 다섯 사람이 추면 오행착복무(五行着服舞)라 한다. 또 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여러 사람이 출 때는 '잡착복무(雜着服舞)'라 한다. 착복무는 18종류로 분류되는데, 1. 향화계(香花偈)작법, 2. 도량계(道場偈)작법 3. 다계(茶偈)작법 4. 삼귀의(三歸依)작법 5. 모란찬(牡丹讚)작법 6. 오공양(五供養)작법 7. 구원겁중(久遠劫衆)작법 8. 자귀의불(自歸依佛)작법 9. 정례(頂禮)작법 10. 지옥계작법 11. 기경(起經)작법 12. 사방요신(四方繞身)작법 13. 운심계(運心偈)작법 14. 만달(曼達)작법 15. 삼남태(三喃太)작법 16. 대각석가존(大覺釋迦尊)작법 17. 창혼(唱魂)작법 18. 음남(唵南)작법 등이 있다. 전주 예수재에는 다계작법이 주로 나타나며, 의식의 여러 과정을 감안하여 한두 가지 착복무를 더 행하기도 한다.

범패는 생전예수재의 음악을 말한다. 크게 나누어 안채비소리와 곁채비소리가 있다. 안채비소리는 의식을 설행하는 목적을 담은 소문(疏文), 각 절차의 연유를 담은 유치문(由致文) 등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운



울에 맞추어 읊는 연행 방식이다. 유치문을 읽는 유치성, 착어문을 읽는 착어성, 소문을 읽는 소성, 편(篇)의 고유문을 읽는 편계성 등이 이에 속한다. 걸채비소리는 4언 또는 7언 절구의 한시나 일부 몇 글자를 음악적으로 풀어낸다. 이 중 여러 명의 범패승이 부르는 매우 느린 소리를 짓소리, 한시를 가사로 삼아 독창으로 연행하는 소리를 홑소리라고 한다. 이러한 홑소리는 착복무의 반주에 사용된다. 더불어 느린 소리는 아니지만, 북소리에 맞추어 진언을 민요처럼 엮어 부르며 바라무를 반주하는 형태도 홑소리에 해당된다. 전주 예수재에서 주목할 것은 화청·회심곡 같은 곡으로, 민요처럼 단순한 선율에 한글 가사를 붙여 부르는 형태여서 신도들에게 호응이 높다.

전주 생전예수재는 이처럼 여법한 의식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호남 고유의 장엄, 작법, 범패를 보여주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봉행하고 있다. 무형유산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생전예수재를 준비한 데에서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2. 유교 전통의례 조정단대제

조정단대제는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의 묘역인 조정단에서 매년 4월 10일 경 조정단대제봉행위원회에서 거행하는 유교의례이다.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조정단대제를 주관한다. 대동종약원은 이밖에도 종묘제례, 사직대제도 주관하고 있고, 원구단에서 열리는 황실행사도 주관한다. 조정단대제를 실제로 주관하는 단체는 조정단대제봉행위원회이다. 해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단대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주관한다.

조정단은 조선 태조 21대조인 전주 이씨 이한의 묘역이다. 신라시대 사공벼슬을 지낸 이한부터 18대조인 목조까지 전주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조묘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지 못하고 고종 황제 광무 3년(1899

년)에 이르러서야 지관의 도움을 받아 왕자봉 아래 지금의 단이 있는 곳에 단을 쌓고 비석을 세워 묘역을 정비하고 가묘를 조성하여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조경단대제의 시작이다. 조경단을 조성하면서 제작한 의궤집으로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가 남아있어 전말을 알 수 있다. 영건청은 조선시대 궁궐 사당 등 큰 건축공사가 있을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이다.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선조들에 대한 예송 차원에서 전주에 있는 시조묘로 조경단을 설단하였고, 삼척에 있는 목조 이안사의 부모묘를 공식적으로 준경묘, 영경묘로 인정하여 정비 공사를 벌였는데 이 시말을 기록한 책이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이다. 아 책에는 조경단 공사에 참가한 관원들의 명단부터, 각종 공문서, 공사에 사용된 목재, 석재 등 물목과 수량, 새로 마련한 제기와 돛자리 등의 물목 수량, 경비 및 출납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경단의 설단 과정 및 당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한제국기에 〈전주건지산도형〉, 〈조경단비각재실도형〉 등 모두 4점의 지도가 제작되어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경단의 지리적 위치 및 형상까지 알 수 있다. 또한 조경묘의 건립 경위, 건축 구조, 제향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자료집으로 〈국역조경묘의〉가 간행되어 있고<sup>4)</sup>, 조경묘의 수리 내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모은 자료집도 있어 실상을 알 수 있다<sup>5)</sup>.

조경단대제는 현재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씨종약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와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마다 전주로 와서 제의를 주관한다. 실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조경단대제봉행위원회로 경향 각지의 전주 이씨 문중 유력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에 있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라북도 지부의 여러 인사들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 한 달 전부터 조경단대제 거행을 준비하는데 여러 해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실제로 거행하였기 때문에 큰 문

4) 김순석 외 옮김, 『국역조경묘의』, 전주역사박물관, 2013.

5) 『국역 조경묘경기전대수리등록』, 전주역사박물관, 2019.

제가 없다. 행사 전날 진설을 하고 행사 당일에는 제관행렬, 어가행렬, 조정 단대제 봉행, 제관 및 어가 행렬 이동 후 환복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기록한 홀기가 있어 홀기에 따라 진행하는데 제관 취위(就位),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망료(望燎) 순으로 진행한다. 초헌례에서 축문을 읽는다. 진설은 정해진 법식이 있어 그대로 따른다. 제1행 중박계(中朴桂) 4기(器), 제2행에는 홍산자(紅散子) 2기와 백산자 3기를, 3행에는 백다식 2기를, 4행에는 비자, 실백자(갓), 진자(개암), 건시(꽃감), 대조(대추), 향울(밤)을 각각 1기씩 6기를 진설하고, 5행에는 유병(油餅), 절병(切餅), 보시병(甫是餅), 유사병(油沙餅), 당고병(唐糕餅), 상화병(床花餅), 두단병(豆團餅), 경단병(敬團餅), 자백병(煮百餅)을 각각 1기씩 9기를, 6행에는 면, 잡탕, 전증(煎蒸)을 진설한다. 조정단대제는 집사가 홀기를 부르면서 참석한 제관들이 그에 따라 진행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제관 취위(祭官 就位)
- (2) 초헌례(初獻禮)
- (3) 아헌례(亞獻禮)
- (4) 종헌례(終獻禮)
- (5) 망료(望燎)

2017년에 읽은 축문은 다음과 같다. 한글 축문과 한자 축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현대식 축문을 풀어서 한글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정유년 사월 십일  
 효현손 황사손 원은  
 시조이신 신라사공공 부군과

시조비 경주김씨의 존령께 감히 고하옵니다.  
처음으로 씨족을 창시하시어 후대를 계속 잇게 하여주시었으니  
예를 중히 여기고 근본을 잊이 않으려 이 좋을 날을 가려  
추모와 공경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드리웁니다.  
심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차려  
경건하고 정결하게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소서<sup>6)</sup>

조경단대제는 전주 이씨 종친들이 거행하는 유교의례로 문중 행사이다. 하지만 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주는 조선왕조를 건국한 전주 이씨의 관향이기 때문이다. 도읍은 아니지만 전주에 이러한 의례가 있음으로 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왕실 도시의 위엄과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현재 성씨별로 다양한 문중 행사가 거행되고는 있지만 이처럼 과거 왕실을 배경으로 한 의례는 없다. 전주 이씨가 사용하는 관향으로 전주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일차적인 조경단대제의 의미가 있다. 경향 각지에서 여러 전주 이씨 문중이 모여 행사를 거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합과 통일의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유교 규범에 맞춰 봉행하는 조경단대제는 지방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교의례가 아직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만 반나절 동안 거행되는 이 행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단순한 1회적 행사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전주라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 등의 왕조 유물, 전주 어진박물관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역대 임금 어진과 연계한 축제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 경기전 옆에 있는 조경묘의례와 연계하

6) 維歲次 丁酉四月十日 孝玄孫 皇嗣孫 源 敢昭告于  
始祖考 新羅司空公 府君 始祖妣 慶州金氏 尊靈 曰  
肇慶啓後 禮重報本 當茲令辰 虔禋追遠 謹以 清酌庶羞 式陳明薦 尚饗

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모든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전주 이씨 문중에서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전주이씨 종약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별로 지부를 두어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다<sup>7)</sup>. 조경단대제를 실제로 주관하는 곳은 조경단대제봉행위원회로 여기에는 황사손, 위원장 1인, 12인의 부위원장이 있으며 2017년에는 위원장이 이태섭이었다. 봉행위원회에는 총무부, 재무부, 의전부, 제무부(祭務部), 경호부, 봉사부, 사무처 등의 부서를 두어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 고문 및 고문으로 구성된 지도위원, 각 지역 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200여 명의 특별위원을 두어 방대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중에서는 조경재(가칭) 건립을 염두에 두고 전 문중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도 조경단대제는 원만하게 전승될 것으로 보인다.

### 3. 무속 전통의례 강신무굿

전북의 대표적인 무속 전통의례는 씻김굿이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가 사라져 해지가 되었지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전북 씻김굿이 지정되어 있었다. 전북의 마지막 단골인 전금순이 사망하면서 더 이상 단골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전주 무형유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사학동에 전주씻김굿보존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만나본 결과 최근에는 전주씻김굿을 거의 연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연행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거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도 세습무가 주재하는 곳이 아니어서 더더욱 과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전주의 세습무가 주재하는 무속 전통의례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관심의 폭을 강신무굿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주씻김굿을 중심으로 전주 무속 전통의례를 파악

7) [www.rfo.co.kr](http://www.rfo.co.kr) 에 상세한 정보가 모여있다.

하려던 처음 의도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전주 곳곳에 강신무임을 알리는 간판이나 깃발이 있다. 몇몇 집을 찾아 무속인을 만났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남은 기간에 강신무곳 사례를 조사해서 첨부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적인 작업은 되어 있으므로 항목으로 설정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씻김굿이 아닌 강신무곳을 전주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 기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한다. 전주에는 강신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공간적 환경은 있다.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전주용왕제의 전통을 고려할 때<sup>8)</sup>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전주 강신무들의 대표적인 무속의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린봉기도터, 고덕산기도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주 인근의 완주군에도 만덕암굿당, 약수암 굿당, 천수굿당, 박보살굿당, 명덕암굿당 등이 있고 모악산 인근에도 무속인들이 찾는 상학마을기도터, 안양골기도터, 모악산굿당(장군당) 등이 있어 조사가 가능하다. 인접한 김제의 용곡암굿당, 익산의 마륵암굿당, 약손굿당에도 전주의 무속인들이 나가고 있으므로 역시 조사가 가능하다.

전주의 무속 전통의례는 전통적인 세습무 곳의 소멸과 강신무곳의 발달로 정리된다. 무형유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고려할 때에는 마땅히 세습무곳을 조사해야 하겠지만, 현재성을 고려하면 사라진 세습무곳보다는 강신무곳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주의 무속 전통의례는 무형유산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시금석이 될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 4. 관우신앙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전국에 여럿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의 동묘, 인천 강화군의 동관묘 등이 있다<sup>9)</sup>. 전주에도 관우를 모시는 관성묘가

8) 송화섭 홍태한 외, 『전주용왕제연구』, 민속원, 2013.

있고 이와 관련한 여러 전통의례가 있다. 전주 관성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관성묘 입구에는 '대소인원 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라고 쓴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솟을대문으로 외삼문(外三門)이 있는데, 대문에는 좌우에 작은 방을 만들고 각각 적토마(赤土馬)를 끌고 있는 무신(武神)을 안치해 놓았다.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내삼문(內三門)이 있고, 내삼문을 통과하여 올라가면 수직선상에 관성묘가 있다. 관성묘 건물은 크지 않으나 장엄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각 기둥에는 유려한 필체로 관우를 봉안한 목적 등을 기록하였다. 관성묘에는 관우의 소상(塑像), 관평(關平), 주창(周倉), 조루(趙累), 왕보(王甫)인 네 개의 소조목각상(塑造木刻像)이 있다. 관성묘에서 주목할 것은 정전 중앙에 걸린 현판이다. 황색과 금색으로 칠한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위령현赫(威靈顯赫)'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현판의 오른쪽에는 '중화민국(中華民國) 십년(十年) 단양(端陽) 곡단(穀旦)'이라고 쓰고, 왼쪽에는 '산동동향회(山東同鄉會) 경헌(敬獻)'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미국 10년(1921년) 단오(端午)에 산동성 출신의 화도들이 편액을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주 관성묘 주변에는 만경대, 남고사, 천경대, 삼경사 등 경승지와 문화유적들이 많다. 현재 전주 관성묘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있다.

전주 관성묘는 건립 당시부터 민간신앙과의 관련성이 높다. 전주의 관성묘는 고종 32년(1895) 전라도 관찰사(觀察使) 김성근(金馨根)과 남고산성 별장(別將) 이신문(李信文)이 제안하여 각 지역 유지의 도움을 받아 건립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 설화가 있다.

이신문의 꿈에 관우장군이 현몽하여 관찰사 김성근과 상의하여 사당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여 믿지 않았으나 며칠 후 꿈에 다시 나타나 호통을 치며 재촉하므로 관찰사에게 사실을 고했다. 관찰사는 허

9)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북코리아, 2004.

망하다 하여 보류하고 있었으나 꿈에 나타나 명령함으로 그해 남고산성에 사당을 지었다<sup>10)</sup>.

전주의 관성묘는 영험함이 대단하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국의 강신 무당들이 주기적으로 찾아 신령의 힘을 받아가는 기도터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무속인으로는 서울의 만신 강○임이 있다. 강만신은 현재 서울 갈현동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이로서, 1년에 3-4회는 꼭 전주 관성묘를 찾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물을 준비하여 전주 관성묘에서 치성을 올리기도 한다. 강만신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관성묘를 찾는 무속인들은 대개 서울에서 곁을 할 때 <상산거리>에 관성제군을 모시는 무속인들로 자기 이외에도 여럿이 있다고 한다. 서울 동묘, 강화, 안동 등지에도 관성묘가 있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서해바다와 인접한 전주 관성묘가 가장 영험성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관성묘는 전주를 넘어서서 전국 강신무당들의 대표적인 신성 공간이 되었다.

전주 관성묘의 전통의례는 1년에 6회를 거행한다. 경칩제사, 5월 13일, 6월 13일, 상강 제사, 10월 19일, 12월 6일에 거행한다. 아울러 절기제사도 거행하여 사월초파일, 칠석, 백중, 동지에도 제를 올리고 12월 초하루에도 제를 거행한다. 5월 13일은 관우의 생일이어서 이때 3년에 한 번씩 관우의 황룡포를 개의하는 의식을 전날 거행한다. 의식 순서는 유교의례와 동일한 흐름이다.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서울의 동묘와 같다. 다른 점이라면 서울 동묘가 격식있게 제물을 준비하고 차리는 반면 전주 관성묘 의식은 격식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상당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현재 김성근의 손자인 김진문이 모든 재차를 맡아 진행한다.

그런데 전주에는 이러한 관우에 대한 제사를 집에서도 올린 사례가 있다. 남고산성에서 일을 하던 시아버지가 집에서 관우 제사를 모시던 곳을 본 사례이다<sup>11)</sup>. 관우의 생일이라고 믿고 있는 6월 23일과 10월 19일에 제

10) 『전라금석문연구』 제2호, 2003, 12쪽.



사를 올리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었다고 하니 개인이 집에서 관우를 모시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그만큼 전주에 관우신앙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도교문화와 관련이 있는 법사의 독경문화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일대에 전승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성묘에 함께 봉안되어 있는 <삼국지연의도>의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sup>12)</sup>

### 5.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

전주에는 여러 마을에 마을전통의례가 남아있다. 동서학동 원색장 마을 당산제, 삼천3동 망월리(용복동) 당산제, 원중인(중인동) 당산제, 서서학동 흑석골당산제, 효자4동 호암마을 당산제, 속거마을 당산제 등이 전승되고 있다. 완산동 초록바위진혼제는 특이한 사례이다. 초록바위는 가톨릭 성지이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새남터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큰아들 남명희 등이 순교한 곳이다.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 가엾게 여긴 전라감사가 배교를 권유하였지만 거절하자 이곳 초록바위 아래 강물로 떠밀려져 순교했다고 한다. 2016년 6월 29일 전주 민예충이 주관한 진혼제가 처음으로 열려 새로운 무형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톨릭과 관련이 있는 무형유산으로는 매우 드문 것이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13)</sup>.

11) 완산동 거주 김○희 씨 제보(여, 생년 미상)

12)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남강 김태곤 교수가 기증한 <삼국지연의도>를 특별전시하면서 가치 및 도상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서를 간행하여 큰 도움이 된다.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이 책에 수록된 다음 두 편의 글은 전주 관성묘 <삼국지연의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윤경, 「조선시대 관왕묘의 그림과 화가」,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장장식, 「삼국지연의도와 관우 신앙」,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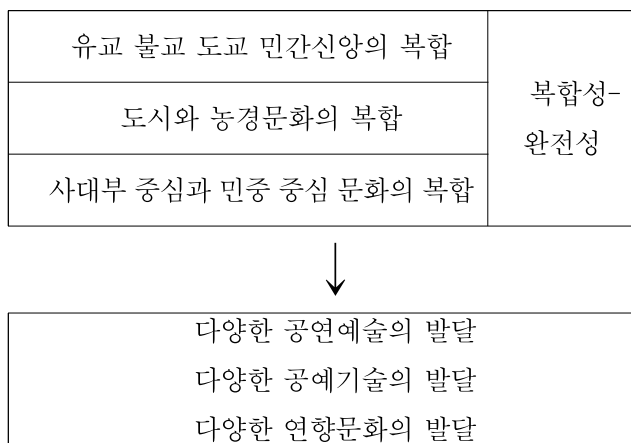
13)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 마을조사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시의 노송동, 서서학동, 완산동 등 12개 마을을 조사한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개괄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전주시마을조사단, 『노송동 마을조사보고서』, 전주

### III. 전주 전통의례의 복합성과 전주 정체성

이상에서 전주 전통의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특징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전주의 전통의례는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있다. 불교 의식, 유교 의식, 도교와 관련있는 의식, 무속 의식, 마을 공동체 의식 등이 전승되고 있다. 전주 이씨 관향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조경단대제에 들어있으며 이는 국행제의로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신앙과 불교 의식은 민중 중심의 의식이다. 현재는 계층이 사라졌지만, 전주에 전승되고 있는 여러 전통의례의 연원에는 과거 다양한 계층의 의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나름의 격식을 갖춘 불교 전통의례와 유교 전통의례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의례가 규범화되어 있다. 반면 무속 전통의례와 마을 전통의례는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 조경단대제는 매스컴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 대표적인 전통의례가 되어 세련된 도시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 반면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에는 농업이 중심이 되던 전통문화의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전주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복숭아 재배, 콩나물 재배가 전주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 화려한 음식문화와 함께 소박한 음식문화가 함께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복합성이 전주비빔밥을 낳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전통의례는 다양한 공연예술의 산실이 된다. 음악의 경우로 한정해본다면 불교 음악, 유교 음악, 무속 음악이 모두 전승되는 곳이 전주이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예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전통의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산이 집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공예기술이 모인다. 전주에 유독 공예기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은 연유이다. 풍성한 음식문화로 대표되는 연회문화가 발달할 여지도 있다.

---

문화재단, 2015. 전주시마을조사단, 『효자4동 마을조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2017.



한 바탕 상상을 해본다. 이강주(6-2호)를 마시고 비빔밥(39호)을 먹고, 악기장(12호)이 만든 악기 장단에 맞춰(판소리 장단9호), 판소리(2호) 한 바탕 듣다가,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에 가서 공동의 평안을 빌기도 하고, 생전 예수재로 대표되는 불교의식에 바탕을 둔 사시구재로 조상을 보내드리고, 여차하면 무당을 찾아 재수 소망을 빌어본다. 흥이 나면 삼현육각(46호)을 들고, 삼현승무(52호)를 감상하고, 가야금병창(49호)에 빠지기도 한다. 집안 곳곳에 목가구(19호)가 놓였고 나전장(50호), 낙죽장(51호)의 장식물이 있으니 무형유산이 넘치는 곳이 아닌가. 따라서 전주에서는 영산작법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여러 불교의식 중에서 생전예수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경단대제가 전주 이씨 문중 중심으로 거행은 되고 있지만 한옥 마을에 있는 조경묘와 연계한 축제 모델 정립이 필요하고, 관성묘를 살려 새만금이 뻗어나가는 황해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역 확장도 필요하다. 실제로 관우신앙은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대단히 매력을 느끼는 신앙이다. 그들에게 관우는 재물신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관성묘를 널리 알리는 것은 관광 진흥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남고산이 성지가 될 수도 있다. 전주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시 머리맡로 돌아가 본다. 전주는 '온고을'이다. 모든 것을 두루 포용하는 도시이다.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진작부터 높아 여러 종목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온'이 완성의 의미라면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데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온'이 열림의 추구라는 의미라면 앞으로는 기왕에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무형유산 정책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할 일이 많은 도시가 전주가 된다. 무형유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주시 자체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주에 때마침 자리잡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전주의 무속신앙과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 관우신앙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기대해본다<sup>14)</sup>.

---

14) 기왕에 이루어진 여러 무형유산에 대한 종합조사보고물이라 할 다음 책자가 간행되어 전주 무형유산 파악에 요긴한 도움이 된다. 무형유산연구원, 『전주의 무형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17.

## ■ 참고문헌

- 『국역 조정묘경기전대수리등록』, 전주역사박물관, 2019.
-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 『전라금석문연구』 제2호, 2003.
- 김순석 외 옮김, 『국역조정묘의』, 전주역사박물관, 2013.
- 김윤정, 「조선시대 관왕묘의 그림과 화가」,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북코리아, 2004.
- 무형유산연구원, 『전주의 무형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17.
- 송화섭 흥태한 외, 『전주용왕제연구』, 민속원, 2013.
- 장장식, 「삼국지연의도와 관우 신앙」,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 전주시마을조사단, 『노송동 마을조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2015.
- 전주시마을조사단, 『효자4동 마을조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2017.
- 흥태한, 「생전예수재 조건점안어운의식의 민속적 의미」, 『민속연구3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 흥태한, 「생전예수재, 산오구굿, 산씻김굿의 비교」, 『불교문예연구6』, 동방대학원 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6.
- 흥태한, 「생전예수재의 실행과 교육적 의미」, 『어문학교육51』, 어문학교육학회, 2015.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전주의 전통의례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찾아보았다. 전주의 전통의례는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있다. 불교 의식, 유교 의식, 도교와 관련있는 의식, 무속 의식, 마을 공동체 의식 등이 전승되고 있다. 전주 이씨 관향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조정단대제에 들어있으며 이는 국행제의로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신앙과 불교 의식은 민중 중심의 의식이다. 현재는 계층이 사라졌지만, 전주에 전승되고 있는 여러 전통의례의 연원에는 과거 다양한 계층의 의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나름의 격식을 갖춘 불교 전통의례와 유교 전통의례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의례가 규범화되어 있다. 반면 마을 공동체 전통의례에는 농업이 중심이 되던 전통문화의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전주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복숭아 재배, 콩나물 재배가 전주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 화려한 음식문화와 함께 소박한 음식문화가 함께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복합성이 전주비빔밥을 낳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전통의례는 다양한 공연예술의 산실이 된다. 음악의 경우로 한정해본다면 불교 음악, 유교 음악, 무속 음악이 모두 전승되는 곳이 전주이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예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전통의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산이 집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공예기술이 모인다. 전주에 유독 공예기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은 연유이다. 풍성한 음식문화로 대표되는 연회문화가 발달할 여지도 있다.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주가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면 이는 다른 여러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전주, 무형유산, 생전예수재, 조정단대제, 무당굿, 관우신앙, 마을신앙, 비빔밥

■ Abstract

## Value of Religious Ceremonies and Attributes of Jeonju

Hong, Teahan

This is an article devised to take a look at the trend of succession for the religious ceremony of Jeonju and search for its value. The religious ceremony of Jeonju is integrated with various cultures. The Buddhist ceremony, Confucius ceremony, Taoism-related ceremony, shamanic ceremony, village community ceremony and so forth are handed down. The symbolic implication in the hometown of Jeonju Lee Clan is contained within the Jogyongdan Great Ceremony and there is a room to expand into the Gukhaengjeoui (national ritual service). In addition, the village community religion and Buddhist ceremony are public-oriented ceremony. The class has been disappeared for now, but in the origin of several religious ceremonies handed down in Jeonju, the ceremony of various classes in the past has been handed down. The Buddhist religious ceremony and Confucius religious ceremony equipped with respective formality have been succeeded and both of these are standardized in all ceremonies. On the other hand, the shamanic religious ceremony and community religious ceremony are not standardized yet. Jogyongdan Great Ceremony has become a representative religious ceremony with splendid spotlight of mass media to represent sophisticated urban culture. In the meantime, in the village community religious ceremony, the flow of traditional culture with the agriculture as the core

part is remained just the way it is. It means that Jeonju contains the integral part of the urban and rural area. Therefore, cultivation of peach and bean sprout may be a representativ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Jeonju. Together with exquisite food culture, the plain food culture may be entirely and completely succeeded together. Perhaps such integral feature may bring the famous Jeonju Bibimbap. As such, various religious ceremonies could be a birth place of diverse performing arts. If it is limited to the case of music, Buddhist music, Confucius music, and shamanic music are all handed down in Jeonju. Hence, various performing arts have been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Furthermore, for the religious ceremony to advance, people and goods have to be gathered together, and under such a flow, various performing arts could be gathered. This is the reason for Jeonju to have significant number of art work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re is a room to advance the banquet culture as it represents an enriched food culture. On the basis of various cultures, if Jeonju may enhance the interests in intangible properties, it could be a role example for other cities.

Keyword ● Jeonju, intangible properties, Buddhist ceremony, Confucius ceremony, Taoism-related ceremony, shamanic cerem

■ 논문투고일 : 2019. 10. 12. ■ 심사완료일 : 2019. 11. 10 ■ 게재확정일 : 2019. 11. 20





#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대학 인문교양:

아도르노와 리스만의 교양 이념을 통해 본 교육의 자본화 및 퇴행 비판

서정일\*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교양과 인문 정신: 빌헬름 폰 훔볼트와 근대 교육의 이상
- III. “아우슈비츠 이후를 위한 교육” - 아도르노의 교육 철학과 교양 이념
- IV “몰교양”의 실체에 대한 비판 - 리스만의 교양 이념
- V. 나오는 말: 포스트휴먼 사회에 다시 생각하는 교양교육

## I. 들어가는 말

지금 세계는 근대화 이후 집약적인 공업화 및 산업화를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인류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가 그것인 바,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새로운 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및 정보 시스템 전반이 기존 노동인력을 대체한 기술의 지능화로 혁신을 이루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사회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3D 프린팅, 무인 운송수단, 로봇공학, 나노기술 같은 혁신적

---

\*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창의교양학부 교수

인 기술들과 융합함으로써 실로 놀랍고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의 출현과 대중화”<sup>1)</sup>일 것이다. 이것은 기계를 만들었던 인간이 그동안 기계를 관리·통제해 왔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과정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근대적 계몽의 주체로서의 인간 이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폭증함으로써 제도권 교육에서 빠른 변화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을 유연화하여 융합교육으로 지향하려는 교육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급격하게 단축된 지식의 수명을 고려하면서도 지식 본래의 가치를 주지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한<sup>2)</sup> 교양교육의 혁신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급속한 변화 환경에서 대학 인문교양의 본령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그 방향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교육철학의 기초를 닦은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교육이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조망한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올바른 교육의 의미, 진정한 교양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일깨우는 지침이 된 테오도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교육 철학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계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폐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진정한 지식교육의 의미에 관한 오스트리아 철학자, 콘라트 파울 리스만(Konrad Paul Liessmann)의 교육철학적 성찰과 분석을 고찰할 것이다.

이른바 ‘포스트휴먼 사회’라고 하지만, 실상 지난 반세기 가까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은 변한 것이 없다. 전(全)지구적으로 막강

1) 김현정(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교양교육의 역할과 방향. 교양학연구 5, 100.

2) 백승수(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18 참조.

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의 가치 체계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강력한 시장원리를 작동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논리가 그것인데, 이 세 철학자들의 교육이상과 교육철학은 이 흐름 속에서 인문정신이 어떻게 제도권 교육에서 발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성찰의 단초를 줄 것이다.

## II. 교양과 인문 정신: 빌헬름 폰 훔볼트와 근대 교육의 이상

“인간”을 주체적 인격체, 개별적·독자적 개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인식한 것은 서구 계몽주의의 결과였다. 그전까지 인간은 신의 피조물, 농노(農奴)와 노비, 왕과 귀족을 위한 노동 도구에 불과했다. 특히 신분과 계층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정신적·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르치는 자”(성직자),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한 “지배하는 자”(군주와 영주), 그리고 대다수 민중들이 구성된 “일하는 자”(평민과 농노)였다. “가르치는 자”와 “지배하는 자”들은 철저히 그들만의 이너서클(inner circle)을 이루며 다수 대중을 억압했다. 물론 “가르치는 자”와 “지배하는 자”는 단순히 성(聖)·속(俗)의 세계만을 분할하여 지배하지 않았다. 때로는 성(聖)에 속한 (성직자) 계층이 속(俗)의 지배자를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경우에든 민중은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중세 ‘암흑기’가 지난 후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서구에서는 계몽주의가 “휴머니즘 시대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문화운동”<sup>3)</sup>으로 확산되었다. 계몽주의 철학은 인간 공동체에 대한 현실 지향적·낙관적 희망을 전파었는데 그 목적은 사회적 진보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민계급에게 변혁에의 전망을 제시하였다.<sup>4)</sup> 이 역동적 변화는 근대 고등

3) Kurt Böttcher: Aufklärung. Erläuterung zur deutschen Literatur. 6 Aufl., Berlin 1977, 17.

4) Kurt Böttcher: 19 참조.

교육의 이상과 이념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빌헬름 폰 훔볼트였다.

훔볼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미적·정치적·도덕적 가치의 중심에 놓고 사유”함으로써 인간 자체를 자기 목적의 존재, 자율적 주체로 인식한 그리스인의 인간관과 그리스적 이상(“Antike”)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을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인격체, 비판적 지성으로 교육하는 것, 즉 보편적 인문교육을 의미하는 “Bildung”이 고등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훔볼트의 이 사상은 오늘날 인문교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sup>5)</sup> 아울러 이것은 계몽주의 이후, 신분이나 혈연에 의한 인간의 정체성 규정이 아닌 독립적·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새롭게 부상한 유럽의 부르주아지, 즉 시민계급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의 교육개혁 구상은 이후 독일 대학에서 꽃피움으로써 독일의 대학은 근대 교육정책의 모델로 발전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여러 인문학자, 교육 철학자들은 공업화 및 산업화, 그리고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훔볼트의 근대교육 이상이 산업과 자본,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났다고 한탄하고 있다. 훔볼트가 생각한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매개되며 성찰적이며 자의식을 가진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위한 도덕적 인격 형성을 추구”<sup>7)</sup>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정녕 필요한 것이 교육에서만큼은 (특히 고등교육에서) 국가와 권력의 간섭과 억압에서 자유로운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 역사와 사회, 현상을 무감각, 무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비판적 입장에서 저항할 줄 알고, [...] 도덕적 목표를 위해 투쟁하고, 휴머니즘적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존재”<sup>8)</sup>로 기르는 유일무이한 길이라

5) 훔볼트의 교육 및 교양 이념에 관해서는 서정일(2019): 자율적 주체를 위한 인문정신의 구현으로서의 교양(Bildung), 독어교육 74, 284 이하 참조.

6) 서정일(2019): 286 참조.

7) 서정일(2019): 287.

는 확신 때문이다.

하버드, 브라운, 시카고대학의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미국 철학회 회장과 학술원 회원, 영국학술원 해외회원이며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100대 지성에 두 차례(2005, 2008)나 선정된 저명한 고전학자이자 법철학자, 정치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도 “인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현재 대학교육의 인문정신의 부재(不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을 추방하는 세태는 가치 있는 세계의 형성, 공감의 감정, 전인적(全人的)인 인격체로서의 인식 능력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sup>9)</sup> 그리고 그러한 인문정신의 망각, 교육의 본질을 방기한 결과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인 아우슈비츠의 비극이었다.

### III. “아우슈비츠 이후를 위한 교육” – 아도르노의 교육 철학과 교양 이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홀로코스트, 즉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대학살로 귀결된 파시즘의 광기가 기승을 부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침묵의 카르텔에 사로잡힌 전후 독일 사회와 인류를 향한 철학자, 테오도어 W. 아도르노의 진단은 명확했다. 아도르노는 1959년 발표한 『어설픈 교양 이론』(Theorie der halbbildung)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발표한 유명한 논문,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Erziehung nach Auschwitz)에서 파시즘과 유대인 학살의 참혹한 비극의 원인은 정치·경제적 문제보다는 올바른 교육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10)</sup> 아

8) 서정일(2019): 287.

9) 누스바움의 교육철학에 관해서는 다음 서적을 참조할 것. 마사 누스바움(2017, 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궁리*. (Martha C. Nussbaum(2012): Nicht für den Profit. Warum Demokratie Bildung braucht. Überlingen.)

10)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다 Nach Auschwitz ein Gedicht zu

도르노가 이 논문을 발표한 1950~60년대 독일(서독) 사회는 보수 정당인 기민련(CDU) 정권 하에서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고도의 전후 경제 성장에 도취하여 불과 십여 년 전에 자행한 과거 역사를 망각의 강에 흘려 보내고 외면했던 때였다.

아도르노가 『어설픈 교양 이론』에서 말하는 “Halbbildung”(어설픈 교양)은 우리말로 교육(또는 진정한 의미의 인문교양)이라고 번역되는 Bildung과 대조적인 의미로서 “절반의 교양 혹은 교육”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 용어이다. 그가 어째서 “halb-”(절반)라는 접두어를 붙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sup>11)</sup> 대단히 비판적으로 규정한 것만은 명확하다.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교육(교양)이라 포장하지만 사실 교육(교양)의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사이비 교육(교양)’과 같은 뜻이다. 아도르노는 “정신의 객관화”를 포기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 교육을 “어설픈 교양”이라고 규정하면서 차라리 “교육(교양)이 아닌 것 Unbildung”(혹은 몰교양) 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sup>12)</sup>

그는 교육이란 모름지기 진정한 교양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양은 기존의 문화, 가치, 세계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개별화된 존재, “독자적 사유와 성찰할 줄 아는 계몽적 주체”라는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캐묻지 않고, 도덕적 성찰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이라면, 교육이라는 허울을 걸치더라도 교육에 대한 ‘반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

schreiben ist barbarisch”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아도르노 철학의 주요 관심 가운데 하나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였다.

11) 홍은영(2015): 아도르노(Adorno)의 ‘절반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교양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권 3호, 198.

12) Theodor W. Adorno(1959): Theorie der halbbildung. In: Alexander Busch(Hrsg.): Soziologie und moderne Gesellschaft. Verhandlungen des 14. Deutschen Soziologentages vom 20. bis 24. Mai 1959 in Berlin, hrsg. von 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Stuttgart, 178이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악덕이 바로 “순응(Anpassung)”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순응이 도처에 지배하는 사회, 그리하여 완전히 순응된 사회는 그저 다윈이 말하는 자연사(自然史, Naturgeschichte)에 불과하다.”<sup>13)</sup>고 잘라 말한다. 비판정신이 결여된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끼워 맞추는데 혈안이 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의 이 진단은 비단 전후(戰後) 독일 사회와 교육계에게만 반향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의 의미, 진정한 교양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일깨우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는 사회의 공적 담론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관심, 더 나아가 기성세대의 주류 담론과 가치관, 지배적 세계관에 침묵하도록 하는 수동적인 교육 체계야말로 비극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아도르노는 교육의 목적이 “두 번 다시 아우슈비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뼈저린 성찰에 근거한다. 그것은 어째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어떻게 하면 그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느냐라는 인식의 지점과 결합된다. 그는 이렇게 진단한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두 분야를 염두에 두었다. 하나는 어렸을 때의 교육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야만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보편적 계몽주의이다.”<sup>14)</sup>

그가 말하는 “보편적 계몽주의”란 무엇일까? 물론 아도르노는 여기서도 그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크라테스

13) Theodor W. Adorno(1959): 171.

14) Theodor W. Adorno(2012): Erziehung nach Auschwitz. Handbuch Bildungs- und Erziehungssoziologi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27.

(Socrates)부터 흄볼트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서구 교육철학 및 교양 이념의 재생을 의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갈한 “인류의 모든 선생들의 선생”(존 스튜어트 밀), 소크라테스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교육철학의 근간이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성찰적이며 자의식을 가진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위한 도덕적 인격 형성을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의 교육’을 강조한 흄볼트의 교육 이념은 근대교육의 핵심적 지침이었다.

그런데 아도르노가 천착한 질문, 즉 “어째서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철학적 진단에서 핵심은 도덕적·이성적 주체이어야 할 인간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맹목적으로 동일시”<sup>15)</sup>하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이 개인이 속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 혹은 사회의 지배적 견해와 관습, 문화 등을 망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집단에 스스로를 편입시키는 순간, 인간은, 개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는 결론짓는다.<sup>16)</sup>

#### IV. “몰교양”의 실체에 대한 비판 - 리스만의 교양 이념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철학 교수, 콘라트 파울 리스만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계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그로인한 인문교육의 황폐화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철학자이다. 최근 그의 저서들이 국내 학자들에 의해 번역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sup>17)</sup> 특히 최근 국

15) Theodor W. Adorno(2012): 130.

16) Theodor W. Adorno(2012): 130.

17) 리스만이 기획하여 독일어권 인문학자들이 출간한 『유럽 정신사의 기본 개념』(Grundbegriffe der europäischen Geistesgeschichte)(전10권)은 서구 사상에서 핵심적인 10개의 개념을 뽑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개괄한 인문학 서



내에 번역 출간된 리스만의 『몰(沒)교양 이론: 지식사회의 오류들』(Theorie der Unbildung. Die Irrtümer der Wissensgesellschaft)<sup>18)</sup>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재 교육의 몰교양(Unbildung) 현상, 특히 인문정신을 압살하는 이른바 ‘교육개혁’의 허상, 대학교육의 황폐화에 대한 비판과 인문교육의 본령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리스만의 이 비판은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에 함몰된 인문정신의 압살 및 ‘몰교양’ 현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근거한다. 리스만은 신자유주의 교육논리의 일방적인 관철과 더불어 전(全)지구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몰교양성, 즉 인문정신의 폐기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교육정책의 비교육적 논리, 구체적으로 서구 전통의 인문정신의 전면적인 부정 행태를 비판하면서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고전적 ‘교양 이념’의 포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교묘하게 치장된 변종 인문학의 논리, 이를테면 팀워크 능력,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교육 목표로 부상하면서 인격적 개성(Individualität)을 위한 교육, “주체의 자율성, 개인의 주권, 개체의 성숙과 같은 과거의 고전적인 교육 담론에 동기를 부여했던 목표들을 노골적으로 의문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9)</sup> 리스만은 이러한 교육 행위가 치명적인 것은 그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sup>20)</sup>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적이고 광포한 확산 현상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오로지 경쟁의 승자를 위한 교육, “1인 자본가”로서 노동시장

---

적으로 필자를 비롯하여 국내 독문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2014년 <이론과실천>에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18)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서정일 외 옮김): 몰교양 이론. 지식사회의 오류들, 한울이카 데미. (Konrad Paul Liessmann(2014): Theorie der Unbildung. Die Irrtümer der Wissensgesellschaft, München.)

19)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96 이하.

20)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97.

에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봉사하게 만든다는 우려와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하버드대학 총장을 역임한 해리 루이스(Harry R. Lewis)는 2006년 자신의 저서, 『혼을 잃은 최고 Excellence Without a Soul How a Great University Forgot Education』<sup>21)</sup>에서 이른바 자본주의에 선선히 순응하고 스스로 그 이행 도구로 전락한 대학의 자화상을 조명하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문제의식, 성숙한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리스만 역시 오늘날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영 혁신”(New Management)이라는 경제학 용어들을 열렬히 숭배<sup>22)</sup>하는 현상을 개탄하면서 혁신의 ‘마법’에 중독된 채 학문적 호기심을 잃고, 자본의 교묘한 논리에 의해 “길들여지고, [...] 그 통제 메커니즘을 내면화”하는 세태를 지적한다.<sup>23)</sup> 즉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에는 국가 권력의 강압에 강제로 굴복했다면 이제는 대학 스스로 자본의 논리를 앞 다투어 수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지식정보화 사회,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4차 혁명 사회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지식으로 착각하는 세태, 계량화된 지식과 구별되는 인격화된 지식의 의미에 대한 지적(知的) 갈망마저 사라진 교육 현장의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몰교양적·비지성적 현상이 ‘교육개혁과 혁신’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개혁과 혁신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저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24)</sup> 이것은 (그의 말을 빌리면) “비(非)본질적인 것에 대한 우상숭

21) Harry R. Lewis(2006): Excellence without a soul: How a great university forgot education. New York.

22)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72.

23)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154.

24) “대학은 늘 변함없이 스스로를 성찰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조종 및 통제 방식은 대학의 내적인 필요성과 구조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특히 기업

배”<sup>25)</sup>와 다름이 없다.

## V. 나오는 말: 포스트휴먼 사회에 다시 생각하는 교양교육

오늘날 정보를 지식으로 착각하고,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보량이 폭증함으로써 무엇이 지식이고 정보인지 분간하기 힘든 국면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그 효용성의 유효기간조차 급속히 짧아지고 그 기준마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인류는 어느덧 4차 혁명,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 사회라는 전대미문의 과정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쉽 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도저히 자리 잡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신자유주의 담론은 마치 강고한 규율 체계처럼 개개인의 의식은 물론 사회 전체의 규범을 철저히 내면화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비단 경제 구조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의 가치체계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강력한 시장원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등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전 세계의 공통의 신홍 지배종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강자 중심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의 실체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터이다.

문제는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과 혁신을 말하지만 그것은 4차 혁명이나 새로운 사회 변화의 흐름 때문이 아닌, 경제

---

컨설팅 및 이와 연계된 경영 기법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154.

25)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108.

논리 및 경영 중심 사유에 대한 추종에 따른 것이다. 독일 교육철학자 요헨 크라우츠(Jochen Krautz)는 어떤 시대건 교육과 가르침의 중심에 “돈을 잘 버는 직장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 미래의 경제성장의 요구에 쓸모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하면서<sup>26)</sup>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교육 방향을 상실하고 경제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강자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투입과 산출”을 산술적으로 따지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는 교육에서 진리와 가치에 대한 성찰과 숭한 도전과 문제의식을 요구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안을 갖는 지성적·인격적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4차 혁명과 인공지능 사회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한 의미가 역설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도 대학평가의 지표를 통해 교양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외재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서의 교양교육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바, 교양교육은 “교양 그 자체의 내재적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sup>27)</sup> 즉 대학 교양교육을 “전공교육, 직업교육, 취미강좌와 차별화”<sup>28)</sup>함으로써 지적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성숙한 정신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창조적, 독자적 사유능력은 오로지 인문학을 통해서만이 길러진다고 강조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지엽적 연대를 넘어 사유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들을 통찰하는 능력,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은 오로지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다.<sup>29)</sup>

그렇기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급변하는 사회, 포스트휴먼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인식능력 역시 인문학적 통찰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

26) Jochen Krautz(20017): Ware Bildung. Schule und Universität unter dem Diktat der Ökonomie. Kreuzlingen/München, 16.

27) 백승수(2017): 24.

28) 백승수(2017): 38.

29) 마사 누스바움(2017): 30 참조.

의하게 된다.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 정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겠지만 그 사회에 인간이 계속 살아간다면, ‘인간다움’에 근거해 세상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잃지 않으면서 성찰하는 능력은<sup>30)</sup>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넓히고, “인류의 공공적 안녕에 기여”하는 윤리적 책무를 자각하는 교육이<sup>31)</sup>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환경 및 생태, 기후 문제, 빈부 격차, 사회적 갈등과 국제 분쟁, 난민, 이주, 기근, 내전 등 특정 지역, 국가 차원이 아닌 인류가 온 지혜를 모으고 연대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기르게 만드는 교육의 본령은 강자 중심의 경제 논리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나 효율성 극대화의 교육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대교육 철학과 교육 이념을 구상한 빌헬름 폰 훔볼트, 20세기 들어 효율성과 합리성의 도구로 전락한 ‘아우슈비츠 비극’의 단초가 된 이성의 실체를 비판하면서 비판이성의 부활을 설파한 아도르노, 21세기 신자유주의 교육의 파국적·물교양적 현상을 비판하는 리스만의 교양교육 철학에 주목하는 것은, 대학이 비인격적인 시장의 예비공간이 아니라 도덕적·윤리적·인격적 주체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고전적 인문정신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30) 김현정(2017): 115.

31) 백승수(2017): 28.

## ■ 참고문헌

- Adorno, Theodor W.(1959): Theorie der halbbildung. In: Alexander Busch(Hrsg.): Soziologie und moderne Gesellschaft. Verhandlungen des 14. Deutschen Soziologentages vom 20. bis 24. Mai 1959 in Berlin, hrsg. von 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Stuttgart, 169-191.
- Adorno, Theodor W.(2012): Erziehung nach Auschwitz. Handbuch Bildungs-und Erziehungssoziologi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25-135.
- Böttcher, Kurt(1977): Aufklärung. Erläuterung zur deutschen Literatur. 6 Aufl., Berlin.
- Krautz, Jochen(2007): Ware Bildung. Schule und Universität unter dem Diktat der Ökonomie, Kreuzlingen/München.
- Lewis, Harry R.(2006): Excellence without a soul: How a great university forgot education. New York.
- 김현정(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교양교육의 역할과 방향. 교양학연구 5, 95-122.
- 마사 누스바움(2017, 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궁리. (Martha C. Nussbaum(2012): Nicht für den Profit. Warum Demokratie Bildung braucht. Überlingen.)
- 백승수(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13-51
- 서정일(2019): 자율적 주체를 위한 인문정신의 구현으로서의 교양(Bildung), 독어 교육 74, 279-299.
- 콘라트 파울 리스만(2018, 서정일 외 옮김): 몰교양 이론. 지식사회의 오류들, 한울

아카데미. (Konrad Paul Liessmann(2014): Theorie der Unbildung. Die Irrtümer der Wissensgesellschaft, München.)

홍은영(2015): 아도르노(Adorno)의 '절반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교양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권 3호, 193-212.

##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휴먼 사회’로 진입한 변화 속에서 대학 인문교양의 본질과 그 과정에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흄볼트와 아도르노의 교육 이상 및 교육 철학, 리스만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을 살펴보았다. 4차 혁명, 인공지능 사회라고 부르는 이른바 포스트 휴먼사회로 급변하는 것 같지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반세기 가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의 가치체계 전반에 뿌리내리며 강력한 시장원리를 작동시키고 대학 교육에 끼치는 그 영향력 역시 지대하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흄볼트와 아도르노, 리스만의 고전적 교육이상과 비판적 인문정신에 주목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 보편적 연대의 가치, 휴머니즘을 보존하기 위한 지성적 의지는 더욱 중요하며 적어도 대학은 그 가치의 보존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주제어 ● 인문교양, 포스트휴먼 사회,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위기



## ■ Abstract

# Liberal arts in posthuman society

Seo Jung Il

In the transition into post-humans society, discussions are being held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liberal arts in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fundamental substance of educational ideals and philosophy of Wilhelm von Humboldt and Theodor W. Adorno and Konrad Paul Liessmann's criticism of higher education Policy.

Even in the post-humans era that the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increasing rapidly, classical education and critical humanity will still be important. The intellectual will to preserve human dignity, universal solidarity and humanism should be realized in higher education and liberal arts.

Keyword ● Bildung(liberal arts), posthuman society, Neo-Liberalism and crisis of the university

■ 논문투고일 : 2019. 10. 15. ■ 심사완료일 : 2019. 11. 10 ■ 게재확정일 : 2019. 11. 19



# 사회공학적 보안 위협 대응 방안:

웹사이트를 통한 보안 위협 중심으로

이 용 준\*

목차

I. 서론

II. 웹사이트를 통한 보안 위협

III. 사회공학적 보안위협 대응 방안

IV. 결론

## I. 서론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공격은 취약점이 있는 이용자 PC 환경으로 웹사이트 접속 시 취약점에 따라서 웹프로그램에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시킨다(K. Thomas, and D.M. Nicol, 2010). 현재 악성코드는 사회적으로 많은 보안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 다양해진 감염 경로를 통해 악성코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취약한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금융정

---

\* 국방보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보 탈취, 봇넷을 이용한 DDoS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그리고 지능화된 APT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ttack)등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A. Govindaraju, 2010). 이러한 악성코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석가들은 효과적인 악성코드 탐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보안 위협 현황을 분석하고,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법 및 분석 사례를 기초하여 사회공학적 보안 위협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 II. 웹사이트를 통한 보안 위협

### 1. 웹사이트에 숨겨진 악성코드 위협

기존 해킹공격은 저장매체, 이메일, 전산망 등 해킹을 통해 악성코드 유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 통한 악성코드 유포가 주된 유포 경로로써 악용되고 있다(JooBeom Yun, YoungJoo Shin, 2011). 웹사이트 통한 악성코드 유포 공격은 취약점이 있는 이용자PC 환경으로 웹사이트 접속 시 취약점에 따라서 웹프로그램에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웹사이트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악용되는 취약점은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 취약점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문서편집기(한글, 워드), 문서뷰어(어도비 아크로벳), 인터넷 브라우저, 플래쉬 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PC환경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 스크립트 실행 시켜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공격기법은 DBD(Drive By Download) 공격기법 이라고 한다. DBD공격기법은 해커가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취약점에 따른 공격코드가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은닉시키고, 취약한 PC환경의 이용자가 접속할 경우 이용자 동의없이 접속한 PC에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어 설치되는 공격

기법이다. [그림 1]과 같이 DBD 공격은 해커가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시킴으로써 변조된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된다.



[그림 1] DBD(Drive By Download) 공격기법

[그림 1]과 같이, 특정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접속하게 되면 취약점에 따른 공격코드가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javascript.js)가 실행되면서, 이용자 PC에 파밍형 악성코드(kara.exe)에 감염되도록 한다. 감염된 이용자PC의 공인인증서 유출 및 호스트 파일이 변조시켜 검색 창에서 위조 금융사이트를 노출시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다(M. Fredrikson, S. Jha, M. Christodorescu, R. Sailer, and X. Yan, 2010).

[그림 2]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웹사이트는 정상 웹사이트와 구분이 되지 않아, 파밍형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구분이 힘들게 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유도창을 통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추가적인 금융정보를 탈취 당하는데 악용된다.



[그림 2] 웹사이트를 통한 파밍 보안 위협 사례

## 2. 웹사이트에 유포 악성코드 탐지기술

웹사이트 유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식으로는 정적분석 방식과 동적 분석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정적분석은 점검대상 웹사이트 웹프로그램을 크롤러로 수집하여, 해당 소스 내에 악성링크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방식이다(V. P. Nair, H. Jain, Y. K. Golecha, M. S. Gaur, and V. Laxmi(2010)). 이때 탐지패턴으로 악성링크가 사용되며, 악성링크는 국내·외를 통해 공유·수집하여 분석한 악성코드 유포지 또는 악성 스크립트 문자열로써 탐지가 가능하다. 정적분석 방식은 기 등록된 탐지패턴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종 악성코드는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해커는 기존에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일부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악성코드를 수집하고 탐지패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코드가 은닉된 웹사이트를 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은 이용자 PC환경을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취약점을 노출시켜, 웹사이트를 접속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레지스트리 변경, 악성코드 다운로드, 명령제어서버 접속 등 악성행위를 분석하는 탐지기법이다(J. Lee, K. Jeong, and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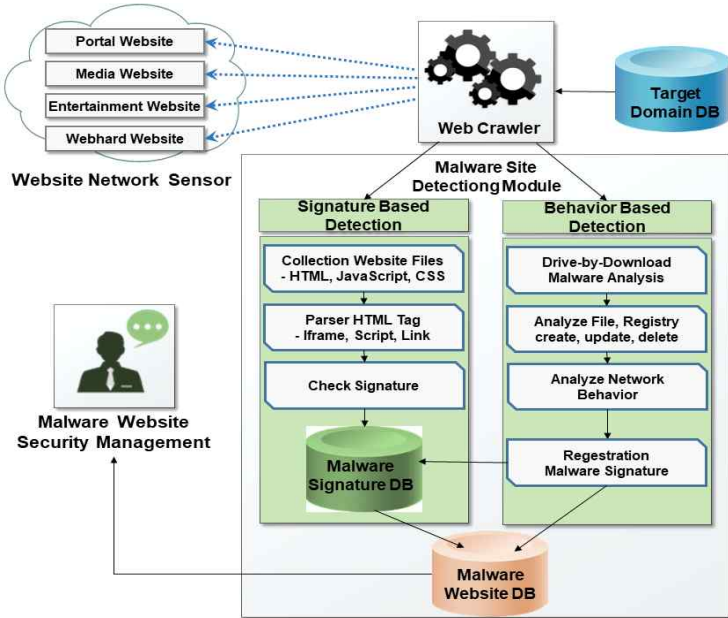
Lee, 2010). 동적기법은 PC이용자 환경에 대한 행위분석이라고도 하며, 탐지패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 악성코드 탐지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분석속도가 느린 특징을 가진다(ROYAL, Paul, 2008).

웹사이트 센서 네트워크 정적분석 방식은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수집도구인 크롤러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웹사이트 소스코드에 악성 스크립트가 있는지 탐지패턴으로 점검한다. 탐지패턴은 PC의 취약점에 대한 악성 스크립트와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 링크 정보 2개 유형으로 웹사이트 소스를 점검한다. 탐지패턴은 정보보안업체가 제공하는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 정보와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악성 스크립트에서 패턴을 검출하였다. 공격자는 백신, 방화벽 등 보안제품을 우회하기 위해 기존의 악성코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배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센서 네트워크에 은닉된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악성코드를 수집·분석하여 탐지패턴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적분석 방식은 탐지패턴을 문자열 비교로 점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며 탐지패턴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종 악성코드는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웹사이트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동적점검은 사용자 PC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PC 내부의 비정상적인 변경상황을 가상화 방식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동적점검은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을 가상화 하여 점검대상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한다. 이때 접속 시킨 웹사이트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경우, 가상화 PC에서 레지스트리 변경, 악성코드 파일 다운로드, 특정 IP 접속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PC 내부의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동적점검은 정적점검에 대비하여 점검속도가 느리지만 변종, 신종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는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센서 네트워크를 점검하여 은닉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정적분석과 동적분석으로 병행하였다. 웹사이트 센서 네트워크 악성코드 탐지 아키텍처는 (그림 3)과 같다. 점검대상 웹

사이트를 Target Domain DB에 등록하여 정적분석과 동적분석 2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점검한다.



[그림 3] 웹사이트를 통한 파밍 보안 위협 사례

정적분석(Signature Based Detection)은 점검대상인 웹사이트를 크롤링 수집방식(Web Crawler)으로 수집하고 탐지패턴 DB(Malware Signature DB)에 있는 200,000개의 탐지패턴으로 점검한다. 동적분석(Behavior Based Detection)은 가상화 PC로 웹사이트에 접속시켜 악성코드 다운로드 여부, 레지스트리 변경 등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접속 요청 등을 점검하여 비정상 여부를 탐지한다. 동적분석을 통해서 변종, 신종으로 분류된 악성코드는 정적분석의 탐지패턴으로 등록하여 사용한다. 정적점검과 동적점검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사이트는 악성코드 경유지 탐지정보(Malware Website DB)에서 저장되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악성코드를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 3. 사회공학적 보안 위협 동향

웹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해커의 목적은 금융정보 탈취, 워터링홀 공격(특정 타겟)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해서 이용자 방문이 많은 웹사이트와 사회적 이슈 관련 웹사이트 그리고 웹호스팅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특징을 보였다.

#### 1) 금융정보 탈취용 악성코드 유포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정보 탈취용 악성코드가 진화하여 유포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한 금융정보 유출형 악성코드는 전체 악성코드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정보 유출형 악성코드는 호스트 파일 변조하는 파밍형 악성코드로서 공인인증서 탈취 목적으로 하여 추가적인 금융관련 정보를 수집을 통해 전자 사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워터링홀(특정 타겟) 공격

워터링홀 공격은 사전에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에 미리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방문하면 감염되도록 하는 공격으로 의료인 관련 협회,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 유포가 탐지되었다. 이러한 공격의 경우는 특정 사회적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APT공격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 3) 이용자가 방문이 많은 웹사이트

해커 입장에서는 이용자 방문이 많은 웹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해야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일기예보,



유명 블로그, 광고 이벤트, 온라인서점, 배너광고, 언론사 등으로 언론, 광고, 쇼핑몰 등 이용자 방문이 높은 웹사이트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사회적 이슈 관련 악성코드 유포

선거 웹사이트, 유명 여행사, 정치적 저명인사 웹사이트 등으로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이용자 방문이 많은 웹사이트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웹호스팅

해커가 개별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에서 웹호스팅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웹호스팅 서비스 특성상 서버에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성공하면 해당 서버의 전체 웹사이트에 악성코드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6>과 같이 유포기간이 단기간에 비해 해당 웹호스팅 서버 웹사이트가 대량으로 악성코드 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사회공학적 보안위협 대응 방안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보안에 대한 인식제고와 웹보안 기술 도입,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안조치 등을 하여 전반적인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대응이 요구된다.

#### 1. 웹보안 인식 제고

해커에 의해 웹서버를 장악된 웹사이트 운영자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투자, 보안패치, 백신설치 등의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사전에 웹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웹보안은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기업의 정보 등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해주는 최소한의 투자로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2. 웹보안 기술 도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 스스로 웹취약점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사전에 해커에 의한 공격을 방지해야 하며, 웹방화벽, 웹шел 탐지 등과 같은 웹보안도구를 설치하여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보안인력이 없다면 외부 보안 전문업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 3. 웹사이트 보호조치 이행

최근 외부전문기관에서 웹사이트의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삭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응답이거나 악성코드 유포가 재발하는 사례가 있다. 최소한 웹사이트 운영기관은 외부로부터 탐지된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해킹사고 분석, 웹보안 보호조치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 4. 이용자 보안조치

악성코드가 은닉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보안패치, 백신설치 등 보안조치를 하는 경우는 악성코드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웹하드, 쇼핑몰 등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가 이용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이를 통해서 금융정보 탈취, 특정 대상에 대한 디도스 등 타겟공격 등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최신 보안패치, 백신설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생활화 해야 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의 분석사례를 보면 향후 금전적 이익을 위한 금융탈취용 공격과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워터홀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신종 악성코드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탐지기술 개발과 국내외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악성코드 확산 방지, 사용자의 보안의식 고취와 웹보안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조사한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분석과 제안하는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악성코드 유포를 예방하고 감염 PC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이버 응급 치료서비스 기법과 DNS를 이용한 좀비PC의 명령제어서버(C&C) 연결 차단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A. Govindaraju(2010), "Exhaustive statistical analysis for detection of metamorphic malwares", Master's project repor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an Jose State University, 2010
- K. Thomas, and D.M. Nicol(2010), "The Koobface Botnet and The Rice of Social Malware," IEEE Int. Conf. Malicious and Unwanted Software(Malware'10), pp. 63-70, Oct. 2010.
- J. Lee, K. Jeong, and H. Lee(2010), "Detecting Metamorphic Malwares using Code Graphs", Proceedings of the 2010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pp. 1970-1977, March 2010.
- JooBeom Yun, YoungJoo Shin(2011), "MiGuard :Detecting and Guarding against Malicious Iframe through API Hooking," IEICE Electronics Express, pp. 460-465, 2011.
- M. Fredrikson, S. Jha, M. Christodorescu, R. Sailer, and X. Yan(2010), "Synthesizing Near-Optimal Malware Specifications from Suspicious Behaviors", Proceedings of the 2010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pp. 45-60, November 2010.
- ROYAL, Paul(2008). "Alternative medicine: The malware analyst's blue pill", Black Hat USA, 2008.
- V. P. Nair, H. Jain, Y. K. Golecha, M. S. Gaur, and V. Laxmi(2010), "MEDUSA: METamorphic malware Dynamic analysis Using Signature from API",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curity of Information and Networks, September 2010.

## ■ 국문초록

악성코드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보안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해진 감염 경로를 통해 악성코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봇넷을 이용한 DDoS 공격과 지능화된 APT 공격 등을 통해 심각한 보안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웹사이트, 웹하드 등을 해킹하여 악성코드를 은닉시킴으로써, 접속하는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용자 접속이 많아 악성코드 유포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해커는 최대한 많은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정보 탈취하거나, APT공격의 전 단계로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회공학적 보안위협, 웹사이트 보안, 악성코드

## ■ Abstract

# Countermeasures on Social Engineering Security Threat: Focused on Website Security

Lee, Yong-joon

Trends show that there has been a huge increase in damages from malware that is hidden on websites by hackers to infect the PCs of visitors to the site. Since websites with a lot of visitors are an easy way to spread malware, attackers use these sites to spread their malware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steal financial information, or to gather information about a specific user as a pre-attack step. In this research, we intend to quickly detect malware and scientifically analyze the hidden purpose of attackers through a malware detection system that uses a website sensor network.

Keyword ● Website sensor network, detection of malware on websites

■ 논문투고일 : 2019. 10. 15. ■ 심사완료일 : 2019. 11. 10 ■ 게재확정일 : 2019. 11. 19



# 국제어로서 영어강좌를 위한 수업방법 연구

조 한 선\*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영어강좌란 무엇인가?
- III. 영어강좌에서 고려할 점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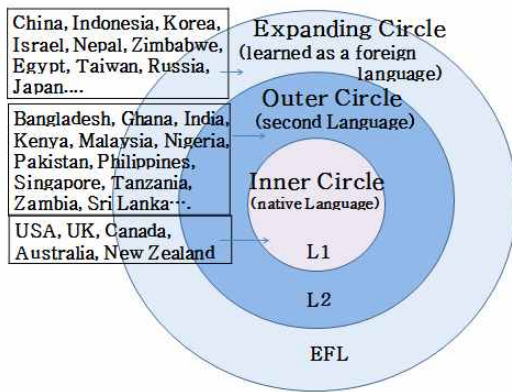
2010년까지 밝혀진 이 지구상의 언어는 6,900개 이상이고,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그 다음이 영어이다 (Anderson, 2010). 그러나 상업, 관광, 스포츠, 예술, 학문 그리고 국제의 교에 있어서 영어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그 영향력이 축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영어”가 사용되는 지역과 활용 영역이 넓어

---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Mauranen, 2015)이다.

이와 같은 영어 확산은 전적으로 정보통신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인터넷은 단일한 통신망으로 세계를 이어놓았고 “민족, 기업,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의 과정을 나타내는”(The Levin Institute, 2016) 세계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가상공동체를 만들고, 심지어 전 세계인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물리적 거리는 사람들의 소통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영어를 주된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영어 확산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그림 1] Kachru’s Three Cicles of English

월드 잉글리시(World English)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브라지 카치루(Braj Kachru)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세 개의 동심원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중심인 핵심층에는 영어를 모국어(L1)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속해있고 핵심층 바로 다음인 외부층에는 영어를 공용어(L2)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해당되며 마지막 확산층에는 핵심층과 외부층을 제외한 나라들로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EFL 또는 ELF<sup>1)</sup>)로 배우는 나라들이 속한다.

제니퍼 쟈킨스(Jennifer Jenkins)는 한 인터뷰에서 전체 영어 사용자에 비해 영어 모국어 화자는 20% 미만에 불과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다섯 명 중 네 명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이라고 언급했다(futurelearn, Web(b)). 이제 영어는 명실 공히 국제어로서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을 넘어, 이미 많은 비영어권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심지어 중등교육기관에서 교육매체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이미 영어를 교육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국제화에 발맞춰 국내 한 대학에서 영어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영어강좌는 증가일로에 있지만, 영어강좌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한 언론사에서 시작한 대학평가 지표에 영어강좌비율이 반영된 이후(2006년) 영어강좌 개설이 대학행정당국의 정책결정에 변수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 가능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영어강좌의 증가세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국제화에 따른 사회·경제변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도 상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기관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쌓아,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야만 해외의 우수한 학습자들과 교수진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이고, 영어강좌 개설 증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그러니 영어강좌는 잠재적인 유학생을 한국 대학으로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영어화자를 위해 700여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Hughes, 2015) 물론 유럽은

1) ELF(English as a lingua franca): 국제어로서 영어. the Me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국제어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제어란 모국어를 달리 쓰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현재 영어는 가장 주된 국제어라 할 수 있다.

2) 영어를 교육매체로 사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줄리 디어던(Julie Dearden, 2014)과 앤 와이즈먼(Ann Wiseman, 2014) 외 1인 연구 참조

볼로나 프로세스(Bologna process)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Plus)와 같은 국가 간의 정책으로 인하여 유럽 동맹의 국가 간 학생들의 이동의 문이 열려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유학생 입장에서나 한국인학습자의 입장에서 영어 강좌는 이전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비영어권 국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어로서 영어를 매체로 하는 수업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영어강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한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신념연구에서부터 대학의 영어강좌 개설 현황, 영어강좌에 대한 인식, 영어강좌의 문제점 분석, 영어강좌에 대한 학습자 불안, 특정 대학의 영어강좌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들로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 등으로 다양하다.<sup>3)</sup>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제시된 개선책은 주로 학교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을 위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들에 관한 제안이 많았다. 그리고 영어 강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방법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다. 물론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고 수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도 있었지만 외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필자는 문학전공자이지만 대학에서 수년간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왔고 2017년 1학기부터 외국인학습자와 한국인학습자가 함께 수강하는 영어강좌를 담당하면서 국제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강좌에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강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고 외국인학습자와 한국인학습자가 함께 수강하는 영어

3) 한국대학의 영어강좌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정연 외 3인, 정영철, 오희정 외 1인, 이광현 외 1인, 그리고 안영은 외 1인의 연구 참조.

강좌를 위해서 교실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영어강좌란 무엇인가?

위에 제시된 카치루의 모델에 의거해서 정의해 본다면, 영어강좌는 한국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가르치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비영어권 국가의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매체로 제공하는 강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영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하는 강좌를 일컫는 말은 많다. 주로 CBI(Content Based Instruction),<sup>4)</sup> EMI(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TTE(Teaching Through English) 또는 TCTE(Teaching Content Through English) 등이다.

한국에서도 고등교육기관마다 영어강좌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크게 두 범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교양영어나 영어회화를 제외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을 외국인 교수자가 가르치는 수업을 말하고, 두 번째는 교양영어나 영어회화를 제외한 전공이나 교양과목을 한국인 교수자가 영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즉 차이는 교수자가 영어 모국어화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듯이 한국인 교수자의 입장에서 영어강좌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일이다.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그것도 외국어인 영어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감은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영어모국어화자만의 특권인 것처럼 간주되고, 비영어권 국가의 교수자는 차선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교수자가 가르치는 영어강좌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염려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같은 현상일 것이다. 김명환 교수

4) CBI는 내용중심교수로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영어가 외국어이므로 EMI와 혼용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도 일찍이 이러한 시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2009).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영어권국가에서 비영어권국가의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영어원어민 교수자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다. 데니스 멀리간(Denis Mulligan)과 앤디 커크패트릭(Andy Kirkpatrick)은 한 연구에서 비영어권국가의 학습자들이 수업을 이해하거나 노트필기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영어권 국가의 학습자들이 수업 중 겪는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는데도 영어원어민교수자들은 여전히 비영어권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의방법을 적절히 고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Mulligan, 2000). 다엘 코울터(Dael Coulter)도 영어 모국어화자를 “의사소통에 가장 서툰 사람”(Morrison, 2016)이라고 에둘러 비판하며 다른 언어를 모르는 영어모국어화자는 국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 한다.

한국의 영어강좌는 외국인 교수자가 되었던, 내국인 교수자가 되었던 국제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교육현장이다.<sup>5)</sup> 교수자가 누구이든, 학습자는 영어 모국어화자가 아닐 확률이 크기 때문에,<sup>6)</sup> 수업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어모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영어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정의와는 다르지만 “국제어로서 영어는 모국어로서 영어와는 동일하지 않고, 영어모국어화자도 부가적으로 습득해야만 하는 것”(Jenkins et al, 2011)이라는 정의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원어민 교수자(monolingual foreign professors)보다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교수자(bilingual Korean professors)가 한국인 학습자를 포함한 비영어권 유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송승철 교

5) 이런 의미에서 영어강좌를 “국제어 강좌”라고 말한 지은림의 지적은 옳다(지은림, 2007).

6) 필자가 2017년 1학기에서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지난 6학기 동안 담당했던 영어강좌 1개의 평균 수강생은 29명이었고 그중 대다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계 외국인학습자였고 영어모국어 화자는 4명 내외였다.

수도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원어민의 강의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2000). 왜냐하면 영어를 국제어로 사용하는 비영어권 국가의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모국어화자보다 제한된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복잡한 언어나 구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표현들을 사용하므로 영어를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로 의사소통이 수월하다. 이는 영국 대학 내의 비영어권국가의 유학생들이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며, 영어가 서툰 동료 유학생들을 신속하게 도와준다는 켄킨스의 언급으로도 뒷받침 된다(Morrison, 2016). 이는 비영어권국가의 유학생들이 영어를 익힐 때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 교수 또한 영어를 익힐 때, 비영어권국가의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업 중 한국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영어표현을 구사하지 못할 때, 한국인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수자가 가르치는 영어강좌는 학습자들 또는 교수자의 언어사용능력 부족이나 학습자들의 영어사용 동기 결여 등으로 인하여 계획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영어를 국제어로 사용하는 수업에서 한국인 교수자뿐 아니라 영어원어민 교수자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한국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어사용능력에 관한 문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한국인의 영어사용능력 문제는 영어에 대한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 표현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수업방식보다 노트필기와 암기를 주로 하는 수업방식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실수가 용인되지 않고 다양성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풍토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실수를 통해서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충분한 과정 없이 학습자나 교수자 모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영어 말하기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닐까? 실로 ‘완벽한 영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모국어화자로서 우리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지 않는가?

비영어권 영어사용자 수가 영어모국어화자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영어강좌가 영어모국어화자처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가르치는 것임을 염두에 두면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한국인 교수자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영어강좌를 듣는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문법이 정확한지 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의 관심사는 교수자의 전문 지식이나 그들에 대한 관심이지 교수자의 영어가 아니다. 그러니 교수자는 영어 문법이나 발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라 하겠다.

### III. 영어강좌에서 고려할 점들

#### 1. 교수자의 불안감 관리

대중들 앞에서 하는 일방적인 연설이라 해도, 청중 앞에 서는 불안감을 완전히 극복할 사람은 많지 않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두려움이 죽는 두려움 보다 크다”(Ferraro et al, Web)고 하니 하물며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하는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짐작하기 어렵다.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teaching English using English)과 영어를 매체로 가르치는 것(teaching content using English)은 차이가 있지만, 어느 편이 되었든 긴장되는 쪽은 학습자 보다는 교수자편이라 할 것이다. 수업에서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집중력

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업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좋은 연설이나 발표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학기 초에 한 학기의 수업계획을 알려주지만, 매 수업마다 도입부에서 학습자들에게 그 날의 수업 목표와 다룰 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고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를 거쳐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알게 됨으로 수업이 예측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교수자는 수업의 진행을 알려주는 자신만의 표현들을 만들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수업을 시작할 때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 'This week's lecture will focus on ....' 'Following last week's lecture, this week's lecture is about ....' 'The topics we are going to deal with today are ....' 등을 사용하여 그 날의 수업 목표를 일러준다. 수업 중간에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갈 때는 'Let's move on to ....., 'Moving on to ....., 'Please go to page ....., 'We've finished this section, please go to the next section.'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날 때는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oday's lesson is....' 'There is one thing you should remember.' 등과 같은 말로 그 날의 배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질문을 받고 마치는 것이 좋다. 'I'd like to finish today's lesson here.' 'I'd like to conclude today's lesson by saying that....'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oday's lesson?' 등은 수업을 마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수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누그러뜨렸다면, 교수자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는 그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고 차이는 있지만 강의 경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수업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메모를 읽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메모를 그저 읽는

다면 학습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할 것이고 학습자들의 집중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강의노트나 메모가 있다면 혹시 놓칠지도 모르는 흐름을 위해서 교탁위에 두고,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도록 한다.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자신만의 자연스럽고 독특한 말하기 방식을 갖기 위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손놀림과 몸짓을 곁들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 영어모국어화자처럼 말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 교수의 과목에 대한 열정, 학습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과 소통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법적인 오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 2. 목소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술 형식으로 본다면 수업은 연극과 같다. 아니 마당극에 더 가깝다. 연극이나 마당극 모두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연극이 짜인 극본에 따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라면 마당극에서는 배우와 관객들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당극에서 배우와 관객들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교수가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다. 대부분의 수업은 말로 하는 것이므로 목소리는 중요한 도구이다. 목소리는 장애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말투와 억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학습자들과 교수가 서로의 억양과 말투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학기의 첫 시간은 수업목표나 강의계획을 알리면서 학습자들과 교수가 서로의 억양과 말투에 적응하도록 할애하는 것이 좋다. 교수자도 학습자들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면 된다.

목소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말의 빠르기이다. 교수의 말



이 너무 빠르면 학습자들의 이해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반대로 너무 느리다면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교과목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감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 교수자가 자신의 말의 빠르기를 확신할 수 없다면, 중간 중간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하거나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리듬이 있는 언어이다. 단어마다 강세가 있고, 또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의 강세가 있다. 또 문장의 형태에 따라 억양이 다르다. 그래서 너무 낮고 단조로운 말투는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이런 강세와 억양을 이용하여 수업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는 학습자들의 신뢰와 집중력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교수자의 자신감 표현과 직결되는 것인데, 대체로 수업이 시작될 때 또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급히 교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본디 작은 목소리를 지녔을 경우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떨리는 목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실에 미리 들어가서 침착하게 수업을 준비하거나 교실에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필자의 경우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3. 어떤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

영어를 국제어로 사용하는 이(다)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모국어화자처럼 말 할 필요는 전혀 없다(Kirkpatrick, 2011). 국제어로서 영어강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영어 어휘와 영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출판을 위하여 글을 쓴다면 격식을 갖춘 학문적인 영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은 길고 난해하더라도 독자가

그 의미를 숙고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다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은 일단 화자의 입에서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수업에서는 쉽고 간결한 어휘를 이용하여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문장도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는 지나치게 격식 차린 어휘를 사용하거나 중문 또는 복문을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영어원어민교수자라고 해도 비영어권국가의 학습자가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구어표현이나, 속어, 약어(abbreviations)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영어강좌의 수강생들은 한국인학습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비영어권국가의 학습자들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한 속어나 어휘는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19세기 영미문학이 전공인 필자에게 '빅토리아시대(Victorian ear)'라는 말은 당연히 '19세기'를 일컫는 말이지만 아시아계 외국인학습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줘야 했다. 특히 다국적 배경의 학습자들의 수업에서는 유머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성차별에 관한 발언도 삼가 한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같은 말이라도 다양한 표현에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학습자들의 이름을 외우면 좋다. 필자는 학습자들의 성은 빼고 이름만 부른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우면 애칭을 물어 출석부에 기재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전자출결을 실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따로 종이출석부를 만들어 학습자들의 국적이란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특징 등을 메모한다. 다국적 배경의 학습자들이 있을 때 국적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과 미묘한 정치적 관계에 있는 나라 출신일 수도 있고, 학습자들 중에 대만과 중국처럼 정치적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지시어는 대체로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Please.....’, ‘Would you.....?’, 또는 ‘Could you...?’ 등의 공손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공손한 말을 사용하면 공손하게 행동하게 된다. 교육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영어가 되었던 한국어가 되었던,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말과 그들에 대한 교수자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학습자들이 교수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4. 학습자들의 영어사용 동기부여 방법

다국적 배경의 학습자들과 한국인학습자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영어강좌는 한국인학습자들 편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좋은 시도라 하겠다. 실제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영어강좌를 수강하는 한국인 학습자들 대부분은 영어에 노출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학습자들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학습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1) 책상과 학습자 배치

교실의 책상 배치를 일방적으로 교단을 마주하도록 배치하기보다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마주볼 수 있게 책상을 융통성 있게 배치한다. 한국인학습자들로만 이루어진 수업이라면 그룹 활동을 하거나 짝 활동을 할 때 짝을 자주 바꾸어 여러 사람의 발음과 억양을 경험하게 해 주고, 다국적 학습자들이 모여 있는 수업이라면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끼리 활동하도록 그룹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

회가 생기고 그로인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국제적 인맥을 쌓는 계기가 되어 국외 진출 가능성을 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 학생 편에서도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2) 학습자들에게 100% 영어 사용을 강요할 것인가?

영어강좌에서 한국인학습자들이나 외국인학습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표면적으로 장려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히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 시간에는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묵인해 줘야 한다.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어로만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면 짧은 문장 몇 개로 토론이 끝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창의적인 생각은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설사 생각을 떠올렸다 하더라도 의욕이 꺾여 포기하고 말 것이다. 한국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문학수업의 사례였지만 “학습자들의 분석력을 영어구사가 가로막고 있다”(정이화, 2000)는 지적은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필자의 수업에서 다국적 배경의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경우, 한국인 학습자들은 종종 외국인학습자의 말을 듣고 반응만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팀의 리더를 정하고 의견을 돌아가면서 제시하도록 하였고 그의 견들을 정리하는 팀원을 지정해서, 학습자들이 토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개념은 모국어와 연관 지어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콘텐츠를 전달할 경우도 마찬가지”(futurelearn, Web (a))라는 견해가 일리 있다.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복잡한 전공어휘는 영어 어휘 자체를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경우 학습자들의 모국어 한 단어로 단박에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다. 영어강좌라

는 융통성 없는 틀이, 영어라는 교육매체가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사고를 제한하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3) 영어의 오류나 변이를 용인할 것인가?

젠킨스는 국제어로서 영어를 오래도록 연구하면서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방대한 집단의 영어사용자들이 영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 한 예로 비영어권의 영어사용자들은 100%는 아니지만 주로 구어에서 'He speak English.'에서처럼 3인칭 동사에서 's'를 생략하거나, 'I have two informations.'처럼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발음에 있어서도 'th[ə]' 나 'the[ðə]' 발음도 사용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으나 듣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futurelearn, Web(b)).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표준 영어와는 다른 비영어권 사람들의 의사소통수단으로 글로비시(Globish)<sup>7)</sup>가 고안된 배경도 이해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토론이 주요 수업 활동일 때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라고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국적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특히, 짧은 토론이나 대화에서는 이러한 영어의 변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말을 할 때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영어강좌에서 학생들의 영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할 때 저지르는 실수는 용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과목에 따라서는 작은 전치사 하나가 의미 전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을 주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에서, '용액을 8밀리미터로 줄이세요.'(Reduce the solution to 8 milliliters.)라는 문장과 '용액을 8밀리미터 줄이세요.'(Reduce the

7) 장 폴 네리에르(Jean-Paul Nerriere)는 1,500개로 간추린 영어 단어와 단순한 문법으로 보다 쉬운 새로운 영어형태인 글로비시를 고안했다.

solution by 8 milliliters.)라는 문장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이야기 할 때, 'King Sejong was born on 1397.' 이라고 말하거나 'King Sejong was born in 1397.' 이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수자가 재량껏 영어의 오류나 변이를 허용해도 될 것이다. 100%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강좌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4)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 는 모든 수업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다. 그 학습자가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수줍음이 많아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교수는 학생에게 즉시 도움을 주기 보다는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교수가 가만히 기다려 줄 때 학습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도 때론 좋은 가르침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체할 경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중에 재차 답을 얻는 것도 좋다. 그런 경우 필자가 즐겨 쓰는 표현은 "00, I'll give you 30 seconds to think about it."이다. 그리고 잊지 말고 그 학습자에게 다시 질문을 한다. 한참 수업하다 "00, Are you ready?" 라고 물으면, 질문을 받은 학습자나 받지 않은 학습자나 모두 즐거워한다. 만약 교수가 그 사실을 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학습자를 실망시킬 뿐 아니라 다음번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학습자들도 준비를 안 할 수도 있다. 교수는 하찮은 것이라도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자가 많은 경우 잊지 않도록 출석부나 교재에 메모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콘텐츠를 가르치는 수업이지만 학습자들의 영어를 교정해 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바로바로 지적하고 교정해주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수할 때마다 교수자로부터 교정을

받는다면 학습자들은 말을 할 때부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아예 입을 달아 버릴 지도 모른다. 만약 교정을 해 주려한다면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긍정적인 피드백은 공개적으로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는 비밀리에 하거나 그 학습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교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유인물과 시각자료 사용

영어강좌뿐 아니라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말을 100% 알아듣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말뿐 아니라 유인물, 시각자료,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 비언어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업내용 중에서 처음 제시되는 개념들이나 전공 어휘 등은 영어원어민교수자라 하더라도 학습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그런 경우 그 주에 배울 전공 어휘나 어려운 개념들은 한 주 전에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주고 숙지해 오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한국 학습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이라면 한국어로 개념을 부연 설명하는 유인물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과목에 따라 ‘역진행 수업(flipped learning)’ 방식이 가능하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전공어휘나 개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영어권국가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것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그리고 숫자 등이 있다. 특히 도시나 나라의 이름은 영어발음과 한국식 발음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 유의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뮌헨은 영어 표기로는 Munich [mjú:nik], 함부르크는

Hamburg[hám̩bæ:rg]이므로 교수자도 반드시 확인하고 발음해야 한다. 교수자가 한국식으로 발음한다면 외국인학습자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숫자 중 통계수치, 연도표기, 전화번호, 항공기편수, 주소 읽기 등도 알아듣기 힘들고 13 -teen과 30 -ty 등과 같은 숫자는 자칫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칠판에 써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시각자료는 수업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구인데, 특히 영어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PPT 슬라이드는 많은 도움이 된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그 날의 수업목표를 제시할 때도 PPT를 이용하면 좋다. 지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주제어만 제시하여 상기시켜 이어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도 요긴하다. 물론 중요한 개념이나 어휘는 말로 설명 하는데 그치지 않고 PPT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넘어가면 효과적이다. 토론을 할 경우에도 토론의 주제나 예시 질문과 해답을 PPT로 보여주면 지침이 될 수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PPT를 만들 때에는 하나의 슬라이드에 가급적 적은 정보를 담는다. PPT 슬라이드는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고, 학습자들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멧 부린 글자체는 피하고 간결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너무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형태의 프로그램은 눈을 피로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학습자들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내용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글자 크기도 대단히 중요하다. 교실의 대형 슬라이드에서도 잘 보이는 배경색을 택하고, 대비되는 색을 사용할 때는 색깔을 구별하는 데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슬라이드를 읽거나 메모 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특히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기 때문에,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중요 사항은 유인물로 공지하고 다시 한 번 PPT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때 필자는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해 준다. 그래도 정보를 놓치는 학생이나, 결석한 학습자를 위해서라면 학교의 온라인 알림 창을 통해서 재차



공지한다.

## 6. 평가의 문제

평가의 문제는 영어강좌에서 교수자가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인학습자들만이 수강하는 수업이라면, 학습자들의 영어수준과 학과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심도 있는 작품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영문학의 경우 “시험 출제는 영어로 하되 답안은 한국어로 작성하는 방법”(정이화, 2000)도 가능하리라 본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외국어강좌는 상대평가 완화대상이며, 그것도 한국인학습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외국인학습자들은 상대평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편에서 성적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지만 교수자 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영어강좌에서는 이론적으로 당연 영어보다는 그 학과목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영어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능력이 성적과 직결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리한 점을 다소 보완하고자 수업 참여도와 두 번의 에세이 과제를 성적에 반영하였다. 시험은 교재의 주요개념과 학습자들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답형과 에세이형태의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나 시험출제 형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 IV. 맺음말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강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수업방법을 논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국제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콘텐츠를 가르치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영어강좌는 교수자에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대로 같은 수업을 한국

어로 할 때보다 영어로 할 때 그 준비시간이 몇 배나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영어강좌를 담당해야 하는 한국인 교수자들이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영어능력의 문제이다.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영어 강좌 수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하의 영어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동료 튜터링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강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영어강좌는 새로운 경험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는 필연적으로 영어 실력이 증진된다. 이 경험을 이용하여 외국의 학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와 교육기관 내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일 수 있고, 영어출판의 기회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학습자들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보통의 영어모국어 화자들보다 영문법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려운 어휘도 많이 알고 있다. 다만 알고 있는 지식을 입 밖으로 끌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데, 영어강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한국인학습자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국제간의 문화적 이해와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한국어로 유학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강좌를 통해 그들에게 언어장벽 없이 질 좋은 대학 공부를 하고, 덤으로 한글을 익히고 한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말로 전달해도 이해하기 힘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교수자나 학생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일이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도 100% 영어만으로 하는 수업이 해답은 아니다. 수업은 학습자들의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강좌에서 영어는 어디까지나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수단일 뿐이다. 만약 교수자 뿐 아니라 학생이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부산물인 것이지 목적은 아닌 것이다.

본 연구는 필자 개인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외국인학습자와 한국인학습자가 수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명환, 「한국 대학의 영어교육이 나아갈 길: '영어 문제' 해법의 살마리」,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25권, 2008, 65~89쪽.
- 송승철, 「영어수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9권, 2000, 178~186쪽.
- 안영은 외, 「대학영어매개강의(EMI)의 효과분석: 영어의사소통역량, 학습곤란도 및 학업성취도(GPA)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9권 2호, 2018, 331~352쪽.
- 오희정 외,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과 지원방안 탐색」, 『현대영어교육학회』, 14권 1호, 2010, 191~212쪽.
- 이광현 외, 「대학영어전용강의의 실태와 학습 성과 분석」, 『지방경영교육』, 18권 1호, 2015, 1~22쪽.
- 이정연 외, 「대학교 전공영어강의의 전공학습 효과 및 효과적인 학습전략과 교수법」, 『교과교육학연구』, 17권 3호, 2013, 729~748쪽.
- 정영철,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전공수업: 교수자의 신념과 인식」, 『현대영미어문학』, 27권 3호, 2009, 247~271쪽.
- 정이화, 「영어원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9권, 2000, 187~192쪽.
- 지은림, 「대학교육의 국제화 요구와 그 수용에 대한 검토: "국제어" 강좌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양교육연구』, 1집 1호, 2007, 187~208쪽.
- Anderson, Stephen R. "How Many Languages Are There in the World?",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010, <https://www.linguisticsociety.org/sites/default/files/how-many-languages.pdf>, 2019. 9. 28.
- Dearden, Julie.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 A Growing Global Phenomenon, 2014.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484\\_emi\\_-\\_c  
over\\_option\\_3\\_final\\_web.pdf](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484_emi_-_c<br/>over_option_3_final_web.pdf)

Ferraro, Vincent and Kathryn C. Palmer. "Anxiety," Speaking and Arguing: The Rhetoric of Peace and War. <https://www.mtholyoke.edu/intrel/speech/anxiety.htm>, 2017. 7. 13.

Hughes, Joanna. "A Closer Look at EMI: Why Study English in a Non-English Speaking Country?." 2015. <https://www.masterstudies.com/article/A-Closer-Look-at-EMI-Why-Study-English-in-a-Non-English-Speaking-Country/>, 2019. 8. 15

Jenkins, J. Cogo, A., and Dewey, M. "Review of development in Research into English as a Lingua Franca." *Language Teaching*, 44(3), 2011, 281~315쪽.

Kirkpatrick, Andy. "English as an Asian Lingua Franca and the Multilingual Model of ELT." *Language Teaching*, 44(2), 2011, 1~13 쪽.

Mauranen, A. "English as a Global Lingua Franca - Changing Language in Changing Global Academia." in Murata, K. (ed). *Exploring ELF in Japanese Academic and Business Contexts*. Amsterdam: John Benjamins, 2015, 29~46쪽.

Morrison, Lennox. "Native English Speakers are the worst c o m m u n i c a t o r s . " <http://www.bbc.com/capital/story/20161028-native-english-speakers-are-the-worlds-worst-communicators>

Mulligan, Denise & Andy Kirkpatrick. "How Much Do They Understand? Lectures, Students and Comprehens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19(3), 2000, 311~335쪽.

The Levin Institute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16

<http://www.globalization101.org/what-is-globalization/>, 2019. 7.

4

Wiseman, Ann and Adrian Odell. "Should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teach in English?." 2014.

<https://www.britishcouncil.org/voices-magazine/should-non-english-speaking-countries-teach-in-english>, 2019. 6. 28

<https://www.futurelearn.com/courses/emi-academics/1/steps/210433>

(a), 2019. 9. 28.

[https://ugc.futurelearn.com/uploads/files/79/89/79899a04-da14-4814-b0fb-8ba67993cfe2/English as lingua franca ELF - where h as EMI come from.pdf](https://ugc.futurelearn.com/uploads/files/79/89/79899a04-da14-4814-b0fb-8ba67993cfe2/English%20as%20lingua%20franca%20ELF%20-%20where%20EMI%20come%20from.pdf)(b), 2019. 8.15.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기존의 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영어강좌 개설현황이나 효율성에 대한 경험이나 통계에 바탕을 둔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외국인학습자와 한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영어강좌 수업방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영어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어의 하나로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교육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여파로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를 토대로 세계무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 비영어권 출신 유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제 비영어권국가에서도 자국의 학습자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또 우수한 해외 학자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영어강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영어강좌 개설이 늘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일이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영어강좌, 국제어로서의 영어, 효과적인 영어강좌수업방법

■ Abstract

##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EMI Classes as Lingua Franca

Cho, Han Sun

This study examines some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at are more beneficial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in EMI classes. Unlike the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questionnaires of Korean students and teachers,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writer of this paper in EMI classes.

English is currentl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ingua francas and is being used as a medium of instruction beyond mere means of communication. This is because people with different native languages and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re moving to the world stage based on English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lthough it is considered natural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to take classes in English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it is now common for some higher education in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to open EMI classes to help their students advance to the world stage and to attract excellent foreign schola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Despite the constant controversy over the EMI classes in Korea, the reasons why the number of EMI classes is increasing seem to be the same. This trend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refore, discussing more efficient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is needed.



Keyword ● EMI classes, ELF(English as Lingua Franca),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EMI classes

■ 논문투고일 : 2019. 10. 11. ■ 심사완료일 : 2019. 10. 29 ■ 게재확정일 : 2019. 11. 15



# A Case Study: Effects of Analogy on EFL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Yu, Kyung-Ah\*

Content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Method  
IV. Results and Conclusion

## I. Introduction

No doubt second language learners or foreign language learners want to read authentic materials at a time without cognitive overload. Especially, when the students at a lower level of

---

\*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proficiency read authentic texts, they often meet unfamiliar concepts or words, which might hinder their reading comprehension. Science texts or subject-related texts containing real language are frequently given to the foreign language readers in content-based classes (Lin & Chen, 2006). Not only content-based classes, but also normal EFL adult classes utilize science reading materials, which often include specific terms, knowledge or concepts. In order to explain a difficult term or a new concept, some science textbooks contain analogies.

According to Halpern, Hansen and Riefer (1990), "analogies are commonly used in all the sciences both in instruction and as a means of theory development (p. 298)." They state that analogies make abstract concepts concrete and therefore easier to remember for L2 learners. Similarly, Gick and Holyoak (1980) have considered analogies as a knowledge bridge between known and new information, which enables readers to transfer new information to memory. Glynn and Takahashi (1998) also argue that analogies can be effectively used to transfer ideas from a familiar concept to an unfamiliar concept. The familiar concept is called the analog and the unfamiliar concept is referred to as the target. When the analog includes characteristics that are common to the target, an analogy can be formed between them. These researchers, in general, argue that analogies in text can aid the students to consider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what they have already known and what they are trying to learn. However, there exists the negative effect of analogic texts on L2 reading comprehension conducted by Hammadou (2000) and Brantmeier

(2005).

Several L1 researchers believe that analogies such as metaphors and similes aid readers' reading comprehension (Hammadou, 2000). For example, Rumelhart and Norman (1981) claimed that some analogies helped L1 readers connect unfamiliar information in text to familiar information in memory. Vosniadou and Ortony (1989) also showed that the young learners recalled more content from the texts having analogy than from the texts that did not. In contrast, other researchers contend that analogies interrupt L1 readers' reading comprehension. For instance, Giora (1993) argues that analogies impede reading comprehension. Nash (1998) reported that the use of analogy is to refresh the readers' attention, not to inform or suggest the solution of a problem. Since th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regarding the effect of analogies on reading comprehens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if analogy texts can aid L2 reading comprehension.

## II. Literature Review

### 1. Types of Analogy

The online Merriam Webster defines an analogy in several ways:  
a. resemblance in some particulars between things otherwise unlike, b. comparison based on such a resemblance. Analogy is a form of comparison, and it compares objects or ideas from different kinds, which are not familiarized. According to Hammadou (1990), "analogy means a comparison of two or more

sets of information that are similar enough to permit transposition of the attributes of one set to the other set (p. 240).” Sometimes names are derived from comparison of entities. For instance, the tiger shark is named because its stripes look like those of a tiger.

### Similes

According to Wong (1993), similes are called proportional analogies. Webster defines similes as a figure of speech comparing two unlike things that is often introduced by like or as. It generally comments on one item, which is unfamiliar.

### Formal analogies

Hammadou (1990) states that formal analogies are more structured and more complex. This form has the A is to B as C is to D template. In the eye passage of her research, the components of a camera were related to the anatomy of a human eyeball. It shows a set of relations. Lens are like cornea as film is like a retina.

Halpern, Hansen and Riefer (1990) tested students with three topics: each of which has two different analogies. They compared the lymphatic system in two ways:

- a. The Lymphatic system is like a movement of water through a sponge. (a far domain)
- b. The Lymphatic system is like a movement of water through veins. (a near domain)

The first analogy is called a far domain analogy, which means

that it has similar underlying structure, but shows that the objects compared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second analogy is called a near domain analogy, which includes both similar underlying structure and surface features.

## 2. L2 studies on analogies

There is small amount of research on analogies in second language contexts. Hammadou (1990)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of analogy in second language comprehension. Sh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nalogies in reading passages on the reading comprehension of beginner and advanced French students. In this study, 72 novice and advanced students of French participat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high, middle and low levels according to the L1 reading comprehension test scores. There were four reading passages with two topics and two versions (analogy vs. nonanalogy). The first passage, the human eye passage, described the parts and functions of the eye and compared these to the parts and functions of the camera. The second reading passages, petanque, described petanque and compared it to American bowling.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ad either analogy passages or non-analogy passages. They read the texts and wrote down recalls in their L1. Two weeks later, the background knowledge test consisting of ten multiple-choice questions was administered in order to measure the depth of their background knowledge. The results showed that analogy groups

gained lower scores than nonanalogy groups. Interestingly, analogy recalls of the students included more incorrect information than nonanalogy recalls. The author argued that complex syntactic structure may inhibit the students recall more.

Hammadou (2000)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nalogy and content knowledge on L2 readers comprehension using expository texts. There were 72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nd 101 French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language proficiency levels. Four reading passages with two topics and two versions were employed each. The first topic was about the human eye and the second topic was about nuclear fission.

Like her first study, each student was randomly chosen to read in either his L1 or L2. After reading each passage, they had to write down recalls that they could remember. After two weeks, they took a background knowledge test. The recalls were scored using Meyers recall protocol scoring system. The result revealed that content knowledge positively affected readers comprehension. However, analogy text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comprehension regardless of the participant group on the L1 passag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2 reading passages. Both studies did not explain how she added analogies to the original versions and what kinds of analogies she used.

In a similar vein, Brantmeier (2005) investigated whether or not the combination of subject knowledge and the text type (analogy vs. nonanalogy), as well as the test type (written recall, sentence

completion, and multiple choice) affected L1 and L2 reading comprehension in Spanish. Three groups, one was from Spain and two were from U.S.A: 53 Costa Rican students at university level, 102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t an intermediate level of Spanish and 138 American students at an advanced level of Spanish. There were four reading passages, two topics, two versions each with one in English and the other in Spanish, one with analogies and the other without. Each student should read one version of both passages. Everyone read a passage and did a recall tas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who read nonanalogy versions of passages performed better than the ones who read analogy versions.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variables such as language, group or analogy vs. nonana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support to Hammadou (1990, 2000), showing that adding analogies does not increase the readers' reading comprehension. However, when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were the measure, some participants who read analogy version of the passage(eye passage) performed better than the ones who read non-analogy version, which did not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Much research indicates that readers' background knowledg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L2 reading comprehension (Bernhardt, 1991; Krekeler, 2006). The prior research utilized several methods to measure the background knowledge. Krekeler employed two methods for the subject knowledge test. First, she asked the students whether they were familiar with the key words of the texts. Second, she asked the participants whether they had been



previously exposed to the text topic by answering yes or no. On the other hand, Hammadou (1990, 2000) and Brantmeier (2005) created the subject knowledge tests, which consisted of 15 multiple-choice questions. They showed that there existed an effect of subject knowledge on reading comprehension in general. However,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adding analogies to the text did not compensate for the lack of the background knowledge.

With regard to the task types that used in previous studies, Hammadou (1990, 2000) only used the recall task when measuring the reading comprehension. Shohamy (1984) indicated that the test-takers could perform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est types. Brantmeier (2005) also criticized Hammadou for employing only one technique for measuring reading comprehension. Brantmeier used not only recall task, but also sentence completion test and multiple-choice questions.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who read nonanalogy texts performed better than the ones who read analogy passages regardless of the task type.

In short, the previous studies revealed conflicting results showing the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effects of analogies on L2 reading comprehension, and the measuring tasks were somewhat inconsistent, which led to more empirical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analogy texts have a facilitating effect on L2 reading comprehens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1) Do analogies in expository texts facilitate L2 reading comprehension?

- 2) Do EFL readers perform differently according to two assessment tasks (written recall, multiple choice questions)?

### III. Method

#### 1. Participants

A total of 12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case study: 6 students were the ones who had been taking a beginning level of General English course in a university in Seoul. The other 6 students were the ones who had majored in English Education in a university in Seoul as well, and they were all females.

Before performing the reading tasks, they were asked to report their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s if they had them. Only two students from the lower-level group reported the TOEIC scores, which were around 300, and the other four had no commercial test scores. The teacher, who had taught them for more than 3 months, said that the six students had similar language abilities. So these six students were considered as a lower-level of proficiency group.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ix students were also asked to indicate TOEIC or TOEFL scores. Their TOEIC scores ranged from 820 to 940. This group was classified into a higher-level of proficiency group.

#### 2. Text analysis

In order to know when the analogies in English textbooks are

used, text analysis was done with some English textbooks or a science magazine. Here are some samples of the text with analogies.

1) Every butterfly has a tube-shaped organ called a proboscis. It works like a soda straw and, in most butterflies, is used to suck sugary nectar from the inside of flowers.

Tickled by a butterfly, Highlights for children (2001, June), p. 40

Since the word in 1), proboscis is unfamiliar to the readers, it gives some explanation using the familiar concept like soda straw.

2) You learned that inside the nucleus of a cell, the chromosomes form a tangles ball of threads. If you straighten a chromosome thread and make it large enough to see, you would see that it is shaped like a twisting ladder. This ladder is called DNA.

Focus on science, Harcourt Achieve, p. 32

The example in 2), a twisting ladder makes the readers understand how a chromosome thread shaped like. Using analogies form, like, it gives a clear image how DNA looks like.

3) Protozoa are also one-celled living things. They feed on other living things. Protozoa are grouped by the way in which they move. Some have tails that work like whips. Others have tiny

hairs that work like oars on a boat.

Focus on science, Harcourt Achieve, p. 32

The example above also uses analogy forms. The familiar words such as whips and oars are used to explain the function of protozoa's tails and hairs. Since the word, protozoa, is unfamiliar to readers, the familiar words help them to visualize how the protozoa move. Here is another example.

4) Crisp uses machines on Earth to watch two robot rovers on Mars. The rovers are like little radio controlled trucks.

Science, Harcourt School Publisher, p. 340

As we can see in example 4), the author assumes that the readers do not know about what robot rovers are like, so he compares it with a truck, which is a familiar concept to the readers.

5) A giant squid has eight arms and two tentacles. A tentacle is like an arm, except it is much longer.

Science, McGrawHill, p. 80

The example in 5) also shows that a tentacle is a technical word. When the readers do not know this term, the familiar word arm give the readers an idea of it is like. The following two examples show this.

6) Catherine saw an exhibit that makes bubbles if you press a

button. She learned that bubbles are like balloons. They are filled with gas and they take up space.

Science, McGrawHill, p. 318

7) My family went to Soda Dam. Bubbles rise off the river just like soda bubbles.

Science, McGrawHill, p. 149

Unlike the examples 1) to 5), the analogies in 6) and 7) are used to explain the features of bubbles. Especially, the example 7) shows that Sada Dam was named because one of the dam's features could be described as soda bubbles.

From the text analysis, English science textbooks contain analogies and most analogies are similes, rather than formal analogies (A is to B as C is D). When a new word or concept such as proboscis, tentacle and rovers is present, or when a new phenomena is described, analogies are used in the text. On the basis of the text analysis result, I would like to use smiles when adding analogies to the original texts.

### 3. Reading passages

Two topic passages were selected from the sixth grade Science (MaGraw-Hill). The reason why I chose two passages from the same book is to attempt to reduce a factor such as text specificity.

The first passage, the immune system, describes what the immune system does and what are its components and their roles

in our body. The second passage, What do leaves do?, describes the functions of leaves and their components. Both passages are nonanalogy versions. The original textbook does not contain analogies.

In this research, similes, which are called proportional analogies, are employed when adding analogies. As Halpern et al. reveals (1990), a far domain analogy is used for modification. The far domain means that it has a similar underlying structure, but shows that the objects compared wer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order to decide which unfamiliar concepts in the passage should be added, one university student, who was taking a beginning level of English conversation course at Y institution, was asked to circle the unknown words while she read the original two passages. The unknown words were immune, germ, saliva, vessel, cell, lymph, node in the immune system passage and epidermis, vein, carbon dioxide, stomata, transpiration, substance, chlorophyll and trap in the passage, What do leaves do?

Then, the researcher selected the words showing concepts: immune system, germ and white blood cells. The concept of white blood cells was chosen because of the word cell. From the second passage, the unfamiliar concepts such as epidermis, stomata and chlorophyll were selected.

The researcher and one native-speaking EFL teacher collaborated to add the analogies to the original passages. He has been teaching college students English for about 3 years in South Korea. Since it is not feasible to meet a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 who teaches science here, an EFL teacher should check

the content of the revised passages. Some extra sentences were added to the original texts to link the ideas. In the immunity passages, three concepts such as immune system, germs and white blood cells were compared with a small police force, criminals and individual policemen. In the leaves passage, epidermis, stomata and chlorophyll were compared with skin, windows and skin pigment.

Nonanalogy version	Analogy version
The immune system helps the body fight germs.	The immune system helps the body fight germs. It is like a small police force that constantly patrols every organ and tissue in your body.
Germs are tiny living organisms that try to enter your body and make it sick.	Germs are tiny living organisms that try to enter your body and make it sick. They are like criminals that the police force (the immune system) tries to keep out.
The white blood cells are found in the blood vessels and in the lymph vessels.	The white blood cells are found in the blood vessels and in the lymph vessels. They are like individual policemen that patrol our bodies killing any harmful criminals (germs) that they encounter.
This protective layer is called the epidermis.	This protective layer is called the epidermis. It is much like the natural human protective agent, skin.
A plant uses its stomata to control how quickly it loses water.	A plant uses its stomata to control how quickly it loses water. Stomata have the ability to open and close like windows; they can open up and let air and carbon dioxide in as well as let water out.
Chlorophyll traps the energy from sunlight. It also gives leaves their green.	Chlorophyll traps the energy from sunlight. It also gives leaves their green color. It is like a skin pigment of humans.

[Table 1] Nonanalogy text vs. analogy text

Table 1 shows how the analogies were added to the original

version.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s of the words and clauses in each version of both passages.

	Nonanalogy texts		Analogy texts	
	Immunity	Leave	Immunity	Leave
No. of words	141	193	214	340
No. of clauses	19	25	29	42

[Table 2] Number of words and clauses

The analogy version of the immunity system contains approximately 214 words with 29 clauses and the nonanalogy version of that passage includes approximately 141 with 19 clauses. The other passage, What do leaves do?, in the analogy vers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340 with 42 clauses, whereas the one in the nonanalogy version has approximately 193 words with 25 clauses. In this study, two different passages with different lengths and content were used.

### 3) Instrument

#### Assessing background knowledge

Before reading the passages, th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the meaning of the key words of the two passages in Korean. Two words from each passage were chosen. In the immunity system passage, immune and lymph were chosen and epidermis and stomata were selected in the leaves passage.



### Assessing topic familiarity

After reading the texts, the students were asked to indicate whether they were familiar with the text topic on a Likert scale from 5 (I am very unfamiliar with this topic) to 1 (I am very familiar with this topic).

### Tasks

Two separate assessment tasks measured the participants' comprehension of each of the two passages (either analogy version or nonanalogy version). First,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written recall after they read each text. Then, they took a multiple-choice reading comprehension test.

#### The recall task

When the students did the recall task, they were asked to write down in L1, which is Korean. I explained they should write their recalls in full sentences as well as possible. They were asked to recall whatever they could such as general ideas and specific details.

####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consisted of five questions: One question was for a general idea and the other three were for specific details. In the immunity system passage, the first question was about finding a general idea, and the other two questions were asking what the functions of germs or white blood cells were. The last question was to find the detailed information. Among these

questions, the two questions asking about the roles of specific organs were related to analogies, since germs and white blood cells were compared with criminals and individual policemen respectively. In the passage, What do leaves do?, four questions were made up. One was for finding a main idea and the other three questions were asking the functions of epidermis, stomata and chlorophyll. These unfamiliar concepts were connected to familiar concepts such as skin, windows or skin pigment.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analogies, these questions were constructed.

#### 4. Procedure

Two groups of students read either analogy versions or nonanalogy versions of two passages in English. In other words, all participants read one version of both passages (the immunity system and what do leaves do?): Three students at a lower level read analogy passages and the other three at the same level read nonanalogy passages. Another three students at a higher level read analogy texts and the other three at the same level read nonanalogy passages.

Before beginning the experiment, the students were told that they would read two passages in English and do the recall task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students were also told that they could not look back the passage when they do the recall tasks and answer the questions.

Before they read the reading passages, they had to write their names (pseudo-names) and TOEIC or TOEFL scores. Then they

were asked to write down the meaning of the key words in Korean. Next, they started to read each passage. There was no time limit but the students spent at most 15 minutes on reading per passage. Then, the students were asked to indicate the topic familiarity. After, they had to submit the reading passage to the researcher and got a recall sheet. After the recall task, the students had to hand in that sheet to the researcher and got a sheet of multiple-choice questions. When the students read the second passage, the same procedure was enhanced.

## 5. Scoring method

The written recall task for both passages was scored according to Martinez's scoring technique (Martinez, 2002). It was called idea units for the specification of common ideas. Martinez stated that she also followed Carrell (1984).

Brantmeier (2005) did not include the recalls of analogies, but this study includes recalls of analogies. Each recall protocol was assigned 1 point if it showed a similar idea to one of the total ideas. In case of incorrect information, the score was not given. The nonanalogy versions of both passages have a total of 20 idea units each and the analogy version of the immunity passage includes a total of 32 and the leaves passage 37 idea units. Here is a sample of idea units of nonanalogy. The number of correct idea units is divided by the corresponding total units of each passage and converted to a percentile score.

- 1) The immune system helps the body fight germs
- 2) Germs are tiny living organisms
- 3) that try to enter your body
- 4) The body is able to keep out these harmful germs most of the time

∴

The researcher and another doctoral student scored to show inter-reliability for scoring. It shows above 90% of agreement.

#### IV. Results and Conclusion

##### 1. Background Knowledge Test

All th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the meanings of the key words before they started the reading test. One point was assigned when the student gave the correct meaning of the word. Three words from each passage were given regardless of the analogy or nonanalogy passage. Among six students at a lower level, only one student gave a correct meaning of one key word.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group of students gave all correct meanings of the key words in the immunity passage and did not write the meanings of the key words of the passage, What do leaves do?

Level/Topic	Nonanalogy texts		Analogy texts	
	Immunity	Leave	Immunity	Leave
Lower group	0.5	0	0	0
Higher group	2	0	2	0

{Table 3} Mean scores of background knowledge test

In order to investigate if analogies in expository science texts facilitate L2 reading comprehension, recall scores and multiple choice test scores are compared with one another. On the basis of the recall scores, analogy for both passages did not seem to enhance L2 reading comprehension. However, the scores on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show some positive effects of the analogies on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 Recall

As Table 4 shows, the groups who read nonanalogy passages recalled more than the groups who read analogy passages. Both lower and higher levels of students write their recalls better when they read nonanalogy passages. In the lower group, the mean score for the immunity passage of analogy version is 31% whereas its 43 % of nonanalogy version. They got an average score of 40% in the analogy passage of What do leaves do?, and 45 % in the same topic of the passage with a nonanalogy version.

Like the lower group, the higher group also shows that they got an average score of 44% in the analogy version of immunity passage and 48 % in the nonanalogy version. When they read the analogy version of What do leaves do?, the students acquired the average score of 57% in the analogy version of What do leaves do? and 65% in the nonanalogy version. Overall, when the students read the nonanalogy version of passages, the students outperformed than those who read the analogy version of passages.

Level/Topic	Nonanalogy texts		Analogy texts	
	Immunity	Leave	Immunity	Leave
Lower group	43%	45%	31%	40%
Higher group	48%	65%	44%	57%

[Table 4] Mean scores of recall task of both the lower and higher groups

### Multiple-choice questions

As Table 5 shows (see below), when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were the measure, the students who read analogy versions of passages performed better than the ones who read nonanalogy versions of passages. In the lower group, the students reading the immunity passage, either analogy or nonanalogy version, they got the same score (3.5). However, in the higher group, the students who read the analogy version of the immunity passage acquired higher scores than the ones who read nonanalogy version.

When the students at a lower level read the passage, What do leaves do?, with analogy version, they got higher scores than those who read the same passage with nonanalogy version. However, the students at a higher level acquired the same scores on either analogy or nonanalogy version (2.5 respectively).

Level/Topic	Nonanalogy texts		Analogy texts	
	Immunity	Leave	Immunity	Leave
Lower group	3.5	2.5	3.5	3.5
Higher group	2.5	2.5	3.5	2.5

[Table 5] Mean scores of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of both the lower and higher grou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if Korean readers perform differently according to two assessment tasks (written recall, multiple choice questions). As shown from Tables 4 and 5, the students performed differently. When the recall was measured, the students who read nonanalogy versions of passages outperformed than the ones who read analogy versions. However, when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some possibility of positive effects of analogy texts.

Although it is hard to draw conclusive results from this study, the participants per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ask types. In this present study, the participants recalled better when they read the nonanalogy versions. However, the participants who read the analogy versions performed better when they answered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For the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est-taking processes to see if the participants used the analogies in choosing a correct answer. Also, there needs more studies regarding when the analogies are used and what types are used via thorough text analysis. For teachers or text developers, they should be aware that adding analogies to the original texts could make the students or readers feel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Reference

- Anderson, N. J., Bachman, L., Perkins, K., & Cohen, A. (1991).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construct validity of a reading comprehension test: triangulation data sources. *Language Testing*, 8(1), 41-66.
- Alderson, J. C. (2000). *Assessing read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hardt, E. B. (1991). *Reading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Norwood, NJ: Ablex.
- Brantmeier, C. (2005). Effects of readers knowledge, test type, and test type on L1 and L2 reading comprehension in Spanish. *Modern Language Journal*, 80 (1), 37-53.
- Carrell, P. L. (1984).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classroom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Modern Language Journal*, 68(4), 332-343.
- Gick, M., & Holyoak, K. J. (1980). Analogical problem solving. *Cognitive Psychology*, 12, 306-355.
- Giora, R. (1993). On the function of analogies in informative texts. *Discourse Process*, 16, 591-611.
- Glynn, S. M., & Takahashi, T. (1998). Learning from analogy-enhanced science tex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 1129-1149.
- Halpern, D. F., Hansen, C., & Riefer, D. (1990). Analogies as an aid to understanding and mem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298-305.
- Hammadou, J. (1990). The effects of analogy on French reading



- comprehension. *The French Review*, 64, 239-252.
- Hammadou, J. (2000). The impact of analogy and content knowledge on reading comprehension: What help, what hurts. *Modern Language Journal*, 84, 38-50.
- Krekeler, C. (2006). Language for special academic purposes (LSAP) testing: the effect of background knowledge revisited. *Language Testing*, 23(1), 99-130.
- Lin, H., & Chen, T. (2006). Decreasing cognitive load for novice EFL learners: Effects of question and descriptive advance organizers in facilitating EFL learners' comprehension of an animation-based content lesson. *System*, 34, 416-431.
- Rumelhart, D. E., and Norman, D. A. (1981). Analogical processes in learning. In J. R. Anderson (Ed.), *Cognitive skills and their acquisition* (pp. 335-35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hohamy, E. (1984). Does the testing method make a difference? The case of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Testing*, 1, 147-170.
- Vosniadou, S., & Ortony, A. (1989).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ng, E. D. (1993). Understanding the generative capacity of analogies as a tool for expla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0, 1259-1272.

## ■ 국문초록

제 2 외국어 학습자들이 수정되지 않은 실제 영어 원문을 읽을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나 단어를 만나 독해를 성공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전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제 2외국어 독자들은 과학과 같은 내용중심 기반 수업에서 실제 모르는 단어를 만나 독해에 어려움을 겪어 지문의 수정이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 능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직유적 표현을 사용한 영어지문과 사용되지 않은 지문을 읽을 때 읽기 이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았다. 읽기 이해력 측정이전에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측정되었으며 이후에 지문을 읽고 회상과업과 객관식 문항을 각기 풀었다. 지문을 읽고 기억나는 것을 쓰게 하는 회상과업에서는 두 집단 모두 직유적 표현지문을 읽을 때보다 원래 지문을 읽을 때 기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직유 지문을 읽을 때 지문에 대한 이해력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영어 독해, 제 2외국어 학습자 독해, 지문 수정, 직유적 표현

## ■ Abstract

# A Case Study: Effects of Analogy on EFL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Yu, Kyung-Ah

When foreign language learners read unmodified real English texts, they frequently encounter unfamiliar concepts or words that make them to unable to read successfu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analogies in English science texts facilitated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nd if the EFL readers per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ading task types. A total of 12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case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read either analogy or nonanalogy versions of two passages in English. In order to investigate if analogies in expository science texts increase th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recall scores and multiple choice test scores were compared with one another. On the basis of the recall scores, analogy for both passages did not seem to enhance L2 reading comprehension. However, the scores on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showed some positive effects of the analogi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Keyword ●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L2 analogy, text modification, recall task

■ 논문투고일 : 2019. 10. 15. ■ 심사완료일 : 2019. 11. 01 ■ 게재확정일 : 2019. 11. 18



#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땀)
-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I. II. III.....(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 없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지식과 교양>홈페이지(kl.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



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 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결정 사항)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 현승훈
-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 편집 위원 :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 서유석(경상대), 송석량(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정옥희(목원대),
  - 최혜진(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19년 11월 30일 / 30 November 2019 통권 제4호 / Vol.4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042-829-8198 kl@mokwon.ac.kr <a href="http://kl.mokwon.ac.kr">http://kl.mokwon.ac.kr</a>
인쇄처 씨앤피 042-824-0701